

선교 회복 (Re-Mission) 전략

: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서의 변화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임태순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2년 5월

Copyright © 2022 Tae Soon Im

All rights reserved.

국문초록

선교 회복 (Re-Mission) 전략

: 받는 자에게 주는 자로서의 변환

임태순

선교사, 아프리카 케냐

본 논문은 나의 아프리카 케냐 선교 사역 경험을 토대로 미래 한국 교회의 선교 회복 (Re-Mission)의 방향을 “선교지가 받는 공동체에서 주는 공동체로 (From Taker to Giver) 되기 위한 선교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케냐 30년 선교 사역 동안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은 것은 “Taker 인 선교지 기독교 공동체 케냐 교회를 어떻게 하면 Giver 주는 교회,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였다. 내 눈에 비친 케냐 교회의 신앙 공동체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이미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에 기초하여 다음의 연구 과제를 상정하였다. 첫째, ‘하나님의 선교란 무엇인가? 둘째, ‘나의 아프리카 선교 30 년의 선교 사역 경험들은 어떠했나?’ 끝으로 ‘아프리카 교회가 주는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가 한국 교회에 선교의 목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뿐 아니라, 현장 선교사들과 선교 후보생들에게 미래 선교의 방향과 바람직한 전략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 Strategy of Re-Mission

: From Taker to Giver

Im Tae Soon

Missionary, Kenya East Africa

This thesis is based on the missionary experience in Africa and ponders the direction of the future mission of the Korean church. The purpose is to present the mission strategy of what and how to transform to become a “Community” From a Taker to a Giver.

During my 30 years of missionary work in Kenya, there is something that has not left my mind. The question was how can we make the Kenya church and Christian community, as a taker to be a giver, a mission oriented community. Because I believe that the Kenyan churches and communities in my eyes have grown into people who can already give with the grace and blessings that God has given them. According to this purpose, the research project was set as follows. First, consider what is God's mission? Second, dealing with issues in the African mission field, Third, I would like to present the mission strategy that Kenya East Africa churches need.

I look forward to contribute that although the topics covered in this thesis may be objective and personal, and this study will be insufficient in many ways, this thesis opens a new perspective to the Korean church and helps missionary candidates think about the direction and strategy of future missions.

목 차

| | |
|---------------------------------------|------|
| 감사의 글 | viii |
| 표 목차 | v |
| 그림 목차 | vi |
| I. 서론 | 1 |
| 문제제기 및 목적 | 1 |
|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 |
| 연구의 의의 | 4 |
| II. 선교 회복(Re-Mission): 하나님의 선교..... | 6 |
| 하나님의 선교 정의..... | 6 |
| 선교사의 소명과 본질..... | 28 |
| 아프리카의 선교 회복..... | 41 |
| III. 아프리카 선교사 30년의 삶 : 주는 이야기..... | 49 |
| 영적인 것 | 49 |
| 혼적인 것 | 69 |
| 육적인 것 | 91 |
| IV. 결론..... | 103 |
| 받는 자의(Taker)자리에 머무르게 된 이유들과 결과들 | 103 |
| 제언 | 105 |
| 참고문헌 | 110 |

표 목차

| | |
|-----------------------------|----|
| <표1> 성경적 세계관과 일반적 세계관 | 19 |
| <표2> 선교의 분류 | 37 |
| <표5> 선교의 흐름 | 47 |

그림 목차

| | |
|----------------------------------|----|
| <그림1> 케냐의 결혼식 | 44 |
| <그림2> 임마누엘 금식 기도원 | 51 |
| <그림3> 순회 전도 사역 | 57 |
| <그림4> 전도 팀원들 | 58 |
| <그림5> 결신 기도하는 모습 | 59 |
| <그림6> 노상 전도하는 모습 | 59 |
| <그림7> 맞사이 부족 전통 복장 | 60 |
| <그림8> 맞사이 아이들 | 60 |
| <그림9> 기도로 눈을 치료 받은 할머니 | 61 |
| <그림10> 어린 아이의 영혼의 소중함 | 61 |
| <그림11> 초창기 : 호롱불 아래서 읽는 성경 | 62 |
| <그림12> 복음의 동산 리무루 교회 | 66 |
| <그림13> 복음의 동산 카싱가 교회 | 66 |
| <그림14> 복음의 동산 키바오니 교회 | 67 |
| <그림15> 복음의 동산 티에쿠누 교회 | 67 |
| <그림16> 구제 사역:식량 나누어 주기 | 71 |
| <그림17> 옥수수 한 짱통 | 71 |
| <그림18> 구제 사역:성도들에게 | 72 |
| <그림19> 구제 사역:주민들에게 | 72 |
| <그림20> 의수를 해 준 학생 | 77 |
| <그림21> 복음의 동산 유치원 | 81 |

| | |
|-------------------------------|----|
| <그림22> 동물원 견학 | 81 |
| <그림23> 복음의 동산 유치원 졸업식 | 82 |
| <그림24> 바나바 장학회 장학생들 | 82 |
| <그림25> 복음의 동산 신학 대학교 | 83 |
| <그림26> 복음의 동산 신학 대학교 전경 | 84 |
| <그림27> 학장 집무실 | 85 |
| <그림28> 채플룸 | 85 |
| <그림29> 컴퓨터 수업 | 85 |
| <그림30> 수업 장면 | 86 |
| <그림31> 채플 예배 | 87 |
| <그림32> 기도하는 학생 | 87 |
| <그림33> 주여, 들으소서 | 88 |

감사의 글

뒤 돌아보면 순간순간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는 바울의 고백은 곧 나의 고백이기도 하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므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확증하신 구원자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역자로 45년 동안 사용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평생 동역자로 30년의 선교사의 삶을 함께 공유하며 기도해 주고 때로는 친구처럼 격려해 주고 굳은 일, 어려운 환경을 마다않고 곁에서 함께 해 준 아내 최수희 선교사가 너무 고맙다. 믿음 안에서 잘 자라준 두 자녀도 고맙고, 사역의 롤 모델이 되어 주신 장인어른 고 최요열 목사님과, 지칠 때 낙담될 때 격려하며 기도로 붙들어 주신 장모님의 사랑에도 감사를 드린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의 거장이신 조병호 교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목회학 박사 과정을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린다.

또한 나에게 『Re-Mission』 선교 회복에 대하여 새로운 생각의 틀을 제시해 주신 김영래 교수님의 신선한 가르침에 감사 드리고, 기호학에 눈을 뜨게 해 주신 레너드 스윗 교수님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모든 사람들 위에 마땅히 모든 감사와 영광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제 I 장

서 론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아프리카 케냐에서 30년을 선교사로 사역하며 지속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받기에 익숙해져 있는 피선교인들을 어떻게 선교의 본질인 “받은 사람에서 주는 사람의 삶으로 전환되게 할 것인가?” 였다. 선교의 완성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주는 사람들이 되고, 피선교지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선교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과 케냐 기독교 공동체가 (Taker) 선교하는 공동체 즉 주는 공동체(Giver)로 변화되게 할 수 있을까? (To be giver from taker)” 라는 질문은 케냐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30년 동안 나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선교사들은 “주는 삶(Giving Life)” 을 살기로 헌신하고 고국을 떠난 사람들이다. 자신의 삶을 주기(Giving) 위해 그 땅을 밟은 사람들이기에 주는 일이 너무 익숙하여 피선교인들을 단지 받기만 하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나 자신도 그 중 하나였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하는 일은(Giving) 다양하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양식을 나누어 주고, 배움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며, 물이 없는 곳에 우물을 파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동체를 위해 진료소를 만들며, 장학금을 지원하고, 교회를 세워주는 등 여러 영역에서 헌신적으로 자신의 삶을 바치

고 있다. 그렇게 주는 것이 당연 해졌고 그것에 익숙해졌다. 때문에 받는 위치에 있는(Taker) 자들을 주는 자(Giver)가 되도록 도우려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200년 선교 역사를 가진 케냐 교회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영적으로 성숙한 케냐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냐 기독교 공동체는 “세계 선교”라는 주제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내 눈에 비친 케냐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미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셨고 그들에게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랫동안 “우리도 선교사를 보낼 수 있다.”고 외치고, 권면하고 가르쳤다.

사실 동아프리카 선교 역사 200년은 케냐 사람들을 “받기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로 만들었다.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누가 이 사람들의 사고를 그렇게 고착되게(setting) 하였는가?”라는 질문은 선교의 미래를 위해 깊이 있고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주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철저하게 믿는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사들은 피선교인들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버리게 만들었고”, 성장하지 않는 교회로 머물게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자아성찰이 필요하다. 마치 아이의 출생에만 몰두하여 양육과 성장을 도와야 하는 일반적인 진리는 잊은 듯이 말이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다.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는 명제를 늘 “주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한국 교회는 이것을 훌륭히 수행해 왔다. 한국 교회가 케냐 선교를 시작 한지도 반세기를 훌쩍 넘어섰다. 그동안 “왜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사들이들을 주는 공동체(Giver)로 성장하게 못하였는가?”라는 반성을 해 보아야 한다.

한국 교회의 헌신과 선교사들의 희생은 케냐 영혼들에게 복음이라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한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선교신학을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이 자각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본 연구의 동기와 목적이다. 또한 이 연구가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에게 피선교지의 교회와 그 백성들을 “받는 공동체에서 주는 공동체(From Taker to Giver)”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선교 전략을 연구하고 방향을 재설정하는데 이바지되기를 기대한다.

연구의 방법과 범위

하나님의 선교는 ‘주는 것(Give)’이 그 시작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역사 속에서 보여진 선교사의 삶과 피의 희생은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꽃을 피우고 있다.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에서 나는 “선교는 받은 사람들 (Takers)이 주는 사람들이(Givers) 되게 하는 순환 선교신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프리카 선교 30년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케냐에서 우리 사역을 통해 영향을 받은 케냐교회들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앞으로 한국 교회가 피선교지 교회들을 어떻게 “받는 공동체에서 주는 공동체(From Taker to Giver)”로 성장하게 할 수 있는지 그 선교 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의의

미래선교의 방향으로 선교회복(Re-Mission)을 제시하는 것에 두고자 한다. 감리신학대학교의 김영래 교수는 미래 교회의 방향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Re-’ 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다시’ 또는 ‘초기’ 를 뜻하면서, 컴퓨터의 reset 즉 ‘초기화’ 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회복(Re-Mission)은 **미래의 희망은 과거에서 찾을 수 있다**는 뜻으로 미래 선교 전략을 과거 선교 전략인 하나님의 선교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재부팅의(Re-) 목적은 ‘본 모습’ 을 복원하려는 것이며 ‘처음 장소’ 로 돌아가는 것이다. 현재의 모습을 보려면 ‘과거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00년 역사를 지닌 “아프리카 선교” 는 1819년 로버트 모펫(Robert Moffat, 1795-1883)이 남아프리카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다. 18세기 태동된 아프리카 선교는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우리는 지금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미래세대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전략과 선교방법을 새로운 시각에서 제시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는 “생각이 바뀌면 내가 바뀐다” 고 믿는다. 수년 전 한동대학교를 방문하여 국제법을 공부하는 청년을 만난 적이 있다. 그때 학교 도서관 유리 전면에 붙여져 있던 영어 문구가 내 눈에 들어왔다. “Why doesn’ t the world change?” “왜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 라는 뜻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기독교는 세상을 바꾸는데 큰 힘이 없다는 의미로 이해되었다. 세상은 경제, 교육, 정치, 사회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변화를 두려워하면서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며 마음이 씩씩했다. 세상은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지상 명령

(Great Commission)의 선교전략과 방법은 과거에 멈춰져 있고, 교회와 선교사들은 현시대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 우선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은 21세기 현대인들에게는 공감을 얻지 못한다. “세대차이”의 간격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1세기 젊은 세대들은(MZ & Z 세대) 세대 차이를 2년~3년으로 본다. 한국 사회의 세대 간의 간격도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존하는 세대를 7 세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1940~1954 사이에 출생한 “산업화 세대”, 전쟁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로 구성된 “베이비붐(Baby Boom) 세대(1955~1963)” 1960~1969 사이에 출생한 “386세대”, 의미가 없다는 특성을 가진 1970~1980 사이의 “X 세대”, 1981~1996 사이의 “Y 세대 (이 세대는 3포, 5포, 다포 세대로서 N 세대라고 한다).” 그리고 출생하면서부터 IT에 익숙해지는 “Z 세대 (1997~)”가 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Y 세대와 Z 세대 사이에 “긴 세대 MZ (1980~2004)”가 있다.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다름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다름의 존재는 다양한 삶의 스타일과 철학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양함이 존재하는 21세기에서 교회의 선교 전략과 방법도 당연히 다르게 제시 되어져야 한다. 필자는 “주고 받고(Give and Take), 받고 주는(Take and Give)” 순환 선교 신학을 제시하려고 한다. “받는 공동체에서 주는 공동체로(From Taker to Giver)” 변화되어져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이다.

제 II 장

선교 회복(Re-Mission),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정의

“선교(mission)는 라틴어 동사 mittere(보내다 또는 파견하다)”¹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하며, 명사형 missio는 라틴어 mitto '내보냄'(sending out)를 의미한다. 종교적으로 선교(mission)라는 말은 “사명과 위임을 주어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 선교사의 자녀로 인도에서 태어난 “맥거브란 (Donald A. McGavran) 박사는 선교를 아래와 같이 정의”²하였다.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문화의 경계를 넘는 것이며, 사람들을 권하여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Lord and Christ) 영접하여 교회의 책임적인 회원이 되게 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전도와 사회정의를 위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³

다양한 선교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Wright)는 ‘성경 그 자체를 선교적 본문과 선교적 현상’으로 보았다. 그는 ‘선교의 성경적 근거’를 찾기보다는 ‘성경의 선교적 근거’를 찾아야 된다고 주장한다. 즉 성

¹ 이광순. 이용원, *선교학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18-20.

² Ibid.

³ Ibid.

경에서 선교적 증거들을 찾아내어 선교의 동기와 근거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근거하여 성경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입증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그는 선교가 성경의 여러 주제 중 하나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선교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다”⁴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구속사가 하나님의 선교라면 구속사의 중요한 흐름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구속 방법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 광희문은 “선교는 10차선 도로에 있는 아이를 잃어버린 아이를 간절하게 찾는 아버지에게 데려다 주는 것이다”⁵ 라고 정의하였다.

앨런 허쉬는 “유인적 교회(Attractional Churches)가 아닌 선교적 (Mission Minded)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선교는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보는 것이라는 단순한 사실에 근거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있는 곳을 떠나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다.”⁶ 라고 했다.

선교학자 김영동은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교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요 선교의 근거다.”⁷라고 정의했다.

다렐 구더는 “선교는 단순히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로 정의된다. 오늘날 주어진 도전은 ‘선교를 하는 교회’에서

⁴ 최형근, *선교학적 연구 방법론* (서울:한국해외선교회출판부, 2015), 25-52

⁵ 광희문,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아가페북스, 2013), 54,

⁶ David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New York: Orbis. Books, 1991), 390

⁷ 김영동, "예수님을 따르며 사랑으로 함께 걷는 선교," *성서마당* 15 (2007.12), 33.

‘선교적 교회’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했다.⁸

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교는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의 출발점은 주는 것이다. 선교는 주는(Giving)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정의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류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선교의 원초적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깡통교회로 알려진 전주 안디옥교회 이동휘 목사는 “선교는 구원 받은 자가 구원자 예수님을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 주는 것이다.”⁹ 라고 정의 하였다.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KWMA) 전 사무총장인 한정국 선교사는 “선교는 내가 받은 구원의 소식을 타문화권 사람에게 전해 주는 것이다.”¹⁰ 라고 정의 했다. 조영철목사는 “이렇게 선교하면 좋습니다”라는 자신의 논문에서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거저 주는 자로 사는 것이 선교이다.”¹¹ 라고 정의했다. 즉 선교사는 먼저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로서 구원자 예수님을 전해 주기 위해 고국을 떠나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고, 익숙해진 것들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자신들을 “주는 삶(Giving Life)”으로 살기로 헌신한 사람들이다.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하려면 먼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선제 되어야 한다. “복음이 무엇이며, 인간은 왜 복음을 믿어야만 하는가?”를 먼저 다루어야 한다. 하나님의 선교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질문을 성

⁸ 김영래, “미래교회 트렌드 읽기,” 국민일보 (2012).

⁹ 깡통교회로 알려진 전주안디옥교회 이동휘 목사의 선교 정의이다.

¹⁰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전 사무총장인 한정국 선교사의 정의이다.

¹¹ 조영철목사, “이렇게 선교하면 좋습니다,” 슬렁스톤즈 9월호 (2015).

경적으로 다루려면 성경은 믿음의 목적(goal)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구약성경은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¹² 했고, 신약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목적이 영혼의 구원”¹³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믿음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 선교로서 곧 “보냄” 이고 “주는 것” 이다.

“하나님의 선교(Mission of God / Missio Dei) 라는 말은 원래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의학 용어이다.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예비하심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선교 행위들을 지칭하는 말로 선교의 핵심(The Core of the Mission)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¹⁴ “주다 (Giving)”의 성서적 배경은 “하나님의 용서에 기초한 사랑이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 하였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¹⁵ 하신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신 것”¹⁶ 은 긍휼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그 사랑의 열매인 용서를 나타낸 것이 하나님의 선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는 주는 것으로 시작 되었다.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교는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선교는 영적으로 주는 것만이 아니라, 육적인 필요를 채워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초대 교회 사도들이 최초의 이방인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사 바울에게 당부한 것도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¹⁷였다.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공

¹² 레위기 26:12, 예레미야 31:33, 에스겔 37:27, 고린도후서 6:16

¹³ 베드로전서 1:9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¹⁴ <https://blog.daum.net/altcosmos/8565590>

¹⁵ 창세기 2: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¹⁶ 창세기 3: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¹⁷ 갈라디아서 2:10 -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급해 주는 것이 초대 교회의 선교 사역의 시작이었다. 교회사를 통해 초대 교부들의 선교신학과 선교전략도 주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주는 것(Giving)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재정(Finance)일 것이다. 선교와 재정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성경에는 “돈과 재정”에 관한 언급이 많이 있다. 기도에 관하여 500 구절 이상 거론되었고, 믿음에 관하여 500 구절 가까이 되지만 “돈과 재정”에 관하여는 2,300 구절이나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서도 15%가 “돈과 재정”이라는 주제였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39 가지인데 그중 16 가지 비유가 “돈과 재정”이었다. 예수님이 “돈과 재정”에 대하여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돈이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임을 아셨던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돈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이었다. 선교라는 명제 아래 주는 것을 다룰 때 항상 제일 앞자리에 재정이라는 주제가 놓여지게 된다.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되는 것은 영적인 헌신과 함께 재정이 따라와야 하기 때문이다. 3장에서 다룰 나의 30년 사역의 현장을 나눌 때 이 부분들이 다루어 질 것이다. 받는 자(Taker)가 주는 자(Giver)로 성장하는 부분에는 재정이라는 주제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하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하나님께 꾸이는 것”¹⁸이라는 잠언의 말씀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 최초의 선교사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¹⁹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선교전략은 주는 것이다”라고 언명하셨다. 그래서 선교학자 JM 테리 박사는 “선교는

¹⁸ 잠 19:17 -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¹⁹ 행 20:35 -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²⁰라고 말했다.

선교가 주는 것이라면 교회는 세상에 무엇을 줄 것인가? 선교사는 물질만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을 주는 사람들이다. 선교는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 보다 영적인 것을 주는 것이 선제 되어야 한다. 영적인 것 없이 물질만 주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고 자선단체들도(Charity Work) 많다. 기독교의 줌(Give)은 영적인 것이 우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위해 선교사들이 사용하는 도구여야 할 것이다.

선교는 돈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피선교지 사람들의 육적인 삶을 돕는 것은 하나의 방법과 복음 증거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선교의 목표가 될 수는 결코 없다. 그것을 농친 교회들과 선교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왜곡되어져 왔다.

나는 이를 1992년 6월 마차코스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실감했다. 교회를 개척한 지 한 달도 되기 전 300여명의 사람들이 교회 예배에 출석했다. 나는 엄청 뿌듯했고 복음이 열매 맺는 것 같아 기뻐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매 주일 예배가 끝나면 줄을 서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이다. 영적 상담이나 기도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질적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요청의 내용들이 비슷한 것이 안타깝다.

“떡을 것이 없다.” “자녀 학비가 없다.” “병원비가 없다.” “바람에 지붕이 날라 갔다.” “장례 비용이 부족하다.” 등등의 도움을 요청한다. 처음에는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는데, 그 끝이 없는 것을 보며 이것이 아닌데 싶었다. 어느 주

²⁰ JM 테리, J 앤더슨, *선교학대전*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3), 54.

일에 사도행전 3장을 통해 “나는 돈이 없다 나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 왔다.” 는 설교 이후 300명의 사람들은 불과 수십 명으로 줄었다. 그때 내가 배운 것은 “선교는 물질적 도움이 아니라, 예수를 전해 주어야 한다.” 는 것이었다.

1990년 5월 아프리카에 처음 도착했을 때, 케냐에서 30년을 사역하셨으며 몇 달 후 은퇴하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지금은 이름도 기억할 수 없는 미국 선교사 한 분이 내게 해 준 조언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임 형제, 이 사람들에게 돈을 보이지 말고, 예수님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Brother Im, Don't show them a green paper but Jesus.)” 다른 표현으로는 “돈으로 선교하지 말고, 예수를 전하는 선교를 하라.” 는 충고였다.

그의 조언은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여전히 내 마음 속에 남아 있다. 그는 초임 선교사인 내게 “문화충격” 까지 안겨 주었다. 당시 60살이 훨씬 넘은 시니어 선교사께서 햇병아리 선교사인 나를 형제라고 불러 주셨다. 한국인의 문화로서 비슷한 연배가 아닌 사람에게 “형제여” 라는 호칭을 듣는다는 것은 평범하지 않기에 “문화충격” 이었다. “형제여” 라는 호칭은 “그의 조언을 마음에 담게 하기에 충분한 그의 친절과 자상함을 느끼게 하였다.” 지금은 아마도 내 주님과 함께 계실 그 분에게 감사하고 나도 후임 선교사들에게 그런 모습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하였다.

레너드 스위트 (Leonard Sweet) 교수의 강의 중에 한 학생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를 위해서 교회는 사역을 주님께 내어 드리고 잠잠히 있어야 하느냐? 듣기에 따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되어 진다.” 라는 질문에 레너드 박사는 이렇게 답하였다.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는 교회이다. 하나님의 도구인 교회가 선택한 것도 교회이다. 그러나 교회는 자주 하나님의 선교와 다른 선교를 하고 있다. 교회는 더 큰 건물, 더 큰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선교는 건물도 아니었고, 더 큰 교단도 아니었으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의 의자에 앉힐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아닌 세상의 구원이었다. 교회 크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상을 향해 내보낼 힘이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들이 추구하는 성도 수의 증가는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다. 구원자 예수, 세상을 치료하시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이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이다. 예수님을 높이기보다 다른 것을 높이는 것 예로 웅장한 성가대 또는 훌륭한 것은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다.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고,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교회의 선교이다. 교회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선교이다!²¹

데빗 보스취(David Bosch)는 “우리의 선교는 스스로의 생명을 갖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선교라 할 수 있다. 선교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출발 된 것이다.”²² 라고 했다. “1952년에 세계교회협의회가 윌링겐(Willingen)에서 모였을 때 그들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선교를 정의하였다.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삼위께서 몸소 예비하신 방도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선교행위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시고, 또한 성부와 성자가 함께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²³이다.

하나님의 선교란 말을 정의하면, 하나님 자신의 역사로서의 선교(Mission as an activity of God himself)를 뜻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

²¹ 목회학 박사과정 강의, Leonard Sweet 교수, 2021년 2월 15일, Global World 강의 내용 중

²² David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New York: Orbis Books, 1991), 390.

²³ <https://blog.daum.net/altcosmos/8565590>

리스도를 세상에 파송하셨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 때의 마지막까지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상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 자신의 선교활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고백하였다. 따라서 교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에 참여하여 그 사역을 분담하고 봉사하지 않는 한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수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선교는 그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임으로, 교회의 근본적인 기능은 무엇보다도 선교를 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신학에서 볼 때, 교회의 모든 계획이나 방법이나 활동은 개 교회 중심주의나 교파 중심주의에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서 행해져야만 한다.”²⁴

교회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결국 즉 영혼의 구원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서 궤도 이탈한 모습을 많이 보여 주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인 “주고 받는 것(Give and Take)”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피선교지 사람들이 교회, 선교 단체 또는 선교사들에게 기대 하는 것이 “주기 보다는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피선교지에 주신 “무형, 유형의 자산”은 그 땅과 그 땅 거민을 위해 주신 것이다. 그것은 “종자돈”이고 “종자 씨”이다. 그것으로 농사를 짓고, 자산을 늘려 가듯이 하나님의 선교도 받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받은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종자 씨가 되게 하여서 또 다른 민족에게 전해주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이다.

정보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손쉽게 선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²⁴ <https://m.blog.daum.net/altcosmos/8565590> (2009. 6. 20 접속)

있다. 그러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선교는 지식이 아닌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교의 대상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 프로젝트 안에서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고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이고 선교의 다음 주자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선교와 프로젝트는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교회, 고아원, 교육시설, 병원이나 의료기관 등은 선교의 대상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부분은 본질과 비본질의 역전현상이다. 프로젝트에 집착하다 보면, 선교의 목적이 상실될 수 있다. 또한 그는 선교의 대상에 대하여서는 뚜렷한 자기 견해를 갖고 있다. “선교의 대상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선교의 대상은 ‘우리 밖’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다.”²⁵라고 곽희문선교사는 강조했다.

선교의 대상에 대하여 환대의 조건과 환경에 대한 좋은 시사점들을 카페에서 (Coffee shop, Cafe) 발견 할 수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따뜻함과 풍성함을 놓치고 있다. 선교와 프로젝트의 관계 (Mission versus mission projects)와 우선순위를 놓치면 하나님의 선교는 길을 잃게 된다. 선교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적 순위 결정에 중요성을 두어야 하는 것이 선교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선교의 시작은 “주고 받다(Give and Take)”의 개념에서 시작되었다. 성경 문화는 내가 받기 전에 먼저 준다는 것이고, 일반 문화는 내가 받은 만큼만 준다는 것이다. 내가 먼저 받아야 내게 준 사람에게도 줄 수 있다는 계산적인 개념이다. 이

²⁵ 곽희문,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아가페북스, 2013), 54.

문화적 차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주고 받다(Give and Take)” 라는 말이다. 왜 미국인들은 “받고 주다(Take and Give)” 라고 하지 않고, “주고 받다(Give and Take)” 라고 했을까? 내가 발견한 답은 “미국인의 문화는 그 뿌리가 성경문화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다.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 되도다. (The Lord Jesus himself said: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take.)” 라고 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²⁶

이와 비슷한 문화가 로마 사람들에게도 있었다. “도 우트 데스 (Do ut Des)”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주기 때문에 내가 준다” 이다.²⁷ “주고 받는다(Give and Take)” 와 같은 의미이다. 그러므로 “도 우트 데스(Do ut Des)” 와 “받으면 준다(Take and Give)” 가 세상 문화라고 한다면, “먼저 주고 그리고 받는다(Give and Take)” 라는 것은 성경 문화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인해 생겨진 행동양식이다. 성경 문화를 가진 미국인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지폐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We Trust in God)” 라고 새겨 넣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문화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적 문화인 “받는 것(Take)” 보다는 하나님의 문화인 “주는 것 (Give)” 에 더 익숙해진 사람들이 된 것이다.

성경문화는 일반문화와 다른 것이 참 많다. 그 차이를 도표로 정리해 보았다.

²⁶ 사도행전 20:35 -....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²⁷ 한동일, *라틴어 수업* (서울: 흐름출판, 2020), 114.

성경적 세계관

- * 거저 주어라
- * 가라
- * 사랑하라
- * 용서하라

일반적 세계관

- * 받은 만큼 준다
- * 네가 먼저 와라
- * 사랑받기 원한다
- * 용서해주라

. <표1> 성경적 세계관과 일반적 세계관

성경적 선교전략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²⁸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세계관은 상대방이 나에게 해준 만큼 나도 그 만큼 해 주겠다는 의식이 지배적이고 일반적이다. 성경은 “가라”고 도전하고 있지만, 세상은 “네가 먼저 내게 오라”고 한다. 성경은 “사랑하라”고 명령하지만, 세상은 “사랑을 받기 원한다”고 말한다. 또한 성경은 “용서하라”고 권고 하지만, 세상은 “용서하는 것에 인색하고 익숙하지 않다.” 내가 용서 받는 것은 언제나 원하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 인색하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배워야 하고 바뀌어야 하는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교회”에서 “가는 교회”의 변화이다.

“받기 보다는 주는 것”을 생활화하여야 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주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사람들이 와 주기를 “기다리는 자세”는 받고자 하는 태도와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는 자세” 곧 “가려고 하는 열망”을 가져야 하나님의 선교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상은 대가를 받기 원하고 대가가 있어야 움직이려고 하지만 선교는 거저

²⁸ 마 10:8 -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는 성경적 태도를 가져야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가는 교회” 곧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었다.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방법이었다.

조병호는 디아스포라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였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방인들 사이에 흩어져 살게 된 유대인들을 일컫는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많이 귀환했지만, 헬라와 로마시대까지도 귀환하지 않고 계속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다. 로마 시대까지도 유대로 귀환하지 않은 흩어진 유대인들은 각자 살던 나라에서 회당을 짓고 주로 장사에 종사하며 살았다. 토요일마다 회당에 모였고,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같은 유대의 3대 명절에는 예루살렘을 방문하며 살았다.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항상 회자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들은 로마 제국하에서 귀족의 가정교사로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었고,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살면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집단을 형성했다.”²⁹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이다. 신약의 사도행전에서 소개된 안디옥 교회와 바울의 선교 사역은 이러한 디아스포라들을 중심으로 행한 하나님의 선교 전략으로서 좋은 모델이 되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초대교회의 출발이 되었고, 초대교회는 “가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그 계기가 산헤드린 공회 사건으로 스테반이 순교한 후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된 것이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고 그들을 보내는 교회가 되었다. “받은 자가 다시 주는 자”가 된 좋은 모델이다. “주는 것”이 하나님

²⁹ 조병호, *성경과 5대제국* (서울: 통독원, 2019), 311-313.

의 선교의 시작이며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고 목표라는 정의 하에 사도행전은 “주고, 받고 그리고 주는 (Give and Take and Give)” 하나님의 선교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선교를 멈추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선교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져가려면 복음을 받은 피선교인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하여 “복음의 빛을 다른 공동체에 갠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교회는 이런 행위를 성경적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선교”라고 정의했다. 그러므로 “선교는 보내는 것이며 주는 것이다.”

②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교는 보내시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주는 것은 보내시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라틴어 “미시오 데이 (Missio Dei) 즉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보내심’에서부터 온 개념이다. 1934년 독일의 선교학자 칼 하텐스타인이 칼 바르트의 ‘액치오 데이 (actio dei)’ ‘하나님의 행위’에서 힌트를 얻어 자신이 만든 용어이다.”³⁰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란 선교는 하나님 자신의 행위이다. 하나님의 본성에서부터 나온 것을 뜻하는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셨던 것이다.”³¹

- 하나님은 노아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와 기회를 얻은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악하게 사는 것을 보고 심판하시려고 한다.³² 여기에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

³⁰ 김영래, “미래교회 트렌드 읽기,” 4.

³¹ 김영래, “미래교회 트렌드 읽기,” 15.

³² 창 6:5-7.

면서도 구원 얻을 길을 주시기 위해 노아를 보내어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선교는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한 것 뿐인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후에도 구원 받을 방법을 주셔서 그들에게 노아를 보내신 것이다³³

-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내셨다.

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순하다고 본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며 기대 하시는 것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³⁴는 것이었다.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하나님이 되고,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할 것이다.

노아의 후손들에게 보여주신 믿음으로 얻는 의를 온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세상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세상에 아브라함을 주신 것이다. 그를 통해 믿음으로 얻는 의를 이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창 12:1 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교사로 보내시는 장면이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찾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세상에 선교사로 보낸 것이다. 하경택은 그의 논문 “구약성서에 나타난 선교의 모델 연구 (Abraham and mission : A Study of a Model of Mission in the Old Testament)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교사로 보낸 것이라고 했다.”³⁵

³³ 창 6:5 -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³⁴ 레 26:12 -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³⁵ 하경택, “아브라함과 선교: 구약성서에 나타난 선교의 모델 연구 (Abraham and mission: A Study of a Model of Mission in the Old Testament),” *선교와 신학* 29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세계 선교연구원, 2012).

“선교(mission)는 어원상 '보냄'과 '사명'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선교의 정의를 통해 선교는 본질상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구약성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야기이다.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선교를 지향한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번영과 유배까지도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이바지한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선교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선교에 임했고’, ‘보내진 곳에서 삶으로 선교에 임했으며’, ‘중보자로서 기도함’으로 선교에 임했다.”³⁶ 아브라함이 선교를 떠나기 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³⁷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선교는 ‘주는 것(Giving)’이라는 것을 대표하는 것이다. 보내시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으로 시작된 것이다.

선교사는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선교사로 자기의 고국, 본토를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선교사 아브라함에서 생각해야 하는 하나님의 선교는 “가라(Go)”이며, “보내심”이다.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방향을 정해 주시며 그곳으로 “가라(Go)”고 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흠으시는 것은 보내시는 행동 곧 “주는 것(Give)”이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는 “가라(Go)”에 있다. “가라”고 하시는 것은 “주라”는 것과 의미가 상통한다. 이를테면 “지시할

³⁶ Ibid.

³⁷ 창세기 12:2.

땅 가나안으로 가라” ,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라” ,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히브리 민족에게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하신 것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하신 것” 은 “보내심 곧 주는 것(Giving)” 의 의미였다.

-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 내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셨다.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³⁸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가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다.”³⁹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선교사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 요나를 보내셨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보내 주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교회는 오늘도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다. 하나님의 선교는 구약성서 시대부터 미래교회까지 보내심으로 지속되어져 가고 있다.

- 선교는 내보내는 것이다.

앨런 허쉬는 “교회는 적은 수의 사람이 모여 있다고 해도 그들 자신의 교회라는 자신감을 갖어야 한다. 유인적 교회(Attractional Churches)가 아닌 선교적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즉 선교가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보내는 것이라는 단순한 사실에 근거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있는 곳을 떠나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라는 것이

³⁸ 출애굽기 3:9 -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³⁹ 출애굽기 3:10 -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다.”⁴⁰ 라고 말했다.

- 보내는 하나님의 선교는 세대를 이어 전승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선교 곧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며, 그 일은 사람을 통해 이어져 가게 하셨다.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보내신 하나님은 모세의 사명이 끝났다고 말씀하셨다.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⁴¹ 하셨는데도 그를 계속 지도자로 지내게 하심은 후임자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이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지속되게 하신 후에 모세를 느보 산에서 가나안을 보여만 주시고 모압 땅에서 죽게 하셨다.”⁴²

“엘리야를 선택하셔서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무명의 엘리야를 선택하셔서 850:1의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3년 6개월 오지 않던 비를 오게 하는 능력을 보이셨다. 그런데 죽겠다고 브엘세바 광야로 간 엘리야를 죽게 하지 않고 40주야를 걷게 하여 하나님의 산 호렘에 이르게 하고 계속 사역을 하게 하신다.”⁴³ 그 이유는 후계자 엘리야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의 선교는 사람이 행하게 하시고 그 일을 사람에게 전하여 주게 하셨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주는 것 (Giving)” 의 선교는 주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로 이어져 가야 한다.

③ 교회의 사명

양육과 충전 그리고 파송은 교회의 기능이며 존재의 목적이기도 하다. 양육과 충전의 목적은 파송 곧 선교이다. 그러므로 선교를 잃어버리면 교회의 가장 중요

⁴⁰ 김영래, *미래 교육 목회* (서울: 땅에 쓰신 글씨, 2010), 42.

⁴¹ 신명기 32:52.

⁴² 신명기 34:1-6.

⁴³ 열왕기상 19:4.

한 기능과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다. 2007년 데이빗 키너먼과 게이브 리온스는 그들의 저서 *UnChristian - What a New Generation really thinks about Christian* 에서 16세 ~ 29세의 미국의 젊은이들은 기독교에 대해 적대감과 분노, 경멸을 느끼고 있다. 그 이유는, 동성애 반대 91%, 단정적 87%, 위선적 85%, 낡은 모습 78%, 지나치게 정치적 75%, 현실성 없음 72%, 이웃에 대한 무감각함 70%, 지루함 68% 이었다”⁴⁴ 고 했다. 이런 통계가 나오게 된 이유는 교회의 사명인 선교적 기능을 상실하였기에 생겨진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교회가 지역 공동체에 소통하므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보여 준 좋은 사례들도 있다. 리퀴드 교회(Liquid Church)⁴⁵가 그 중의 하나이다. 그 교회가 전도하는 방법들을 특이했다. 리퀴드 교회의 네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사례로 교회에서 스타벅스 커피를 제공해 줌으로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들어와 마음껏 먹고 갈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주어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 올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다. 레너드 스윗 박사는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이 카페(Cafe, Coffee shop) 이라고 했다.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따뜻함과 풍성함을 갖게 해 주는 것이 카페이다. 커피는 사회적 윤활유라고도 했다.”⁴⁶

두 번째 방법으로 Flea Market (벼룩시장) 같은 Free Market (무료 시장)을 운영하여 필요한 물건들을 이름만 쓰고 가져가게 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방법은 한 시간 동안 정해진 주유소에 들어오는 모든 차에 기름을 무료(free)로 넣어주고 “God Bless you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시기를)” 라는 말을

⁴⁴ 김영래, “미래교회 트렌드 읽기,” 46.

⁴⁵ 리퀴드 교회는 2007년 팀루카스 목사가 개척한 뉴저지 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이다.

⁴⁶ 김영래, *미래 교육 목회*, 47.

해 주므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회를 알린 것이다.

네 번째 방법은 거꾸로 하는 헌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도 개발하였다. 거꾸로 하는 헌금이란 성도가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보함에서 봉투를 가져가는 것이다. 어떤 성도는 50불이 든 봉투를 가지고 가서 그 돈으로 빵을 만들어 팔아서 얻은 수익을 교회 나눔 사역에 사용하게 하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은 20불 든 봉투를 들고 기름 값을 위해 기도했다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교회가 준비한 봉투 숫자만큼 간증들이 나왔다고 한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20세기 조직 신학자 (자신을 선교신학자 라고 부름) 에밀 브루너 (Emil Brunner)는 “불꽃 (flame)이 없으면 불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선교가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 라고 말하였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설교하더라도 그 가운데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개인적 고상한 종교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있 Christian Social club 에 왔다가는 것이다. 이현모는 자신의 저서 “인생의 후반전은 시니어 선교사로”⁴⁷에서 교회의 사명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하였다.

교회는 단지 선교하기 위해 존재한다. 교회는 선교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선택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크고 힘 있고 사람이 많고 돈이 많은 교회는, 크고 힘들고 돈이 많이 필요한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작고 힘이 없고 사람이 적은 교회는 작고 힘이 적게 드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교회란 결코 믿는 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구원을 서로 자랑하고 즐기는 곳이 아니다. 이의일지 모르지만 교회는 믿지 않는 자를 위한 조직이며, 교회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끌어 들이는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존재한다.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로 모으신 이유는 선교적 사명을 위한 것이다. 초대교회는 이를 잘 감당했으나 점차 갈급함을 잃게 되었을 때 근본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게 되는데,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선교 실패의 이야기이다. 교회는 믿

⁴⁷ 이현모, *인생의 후반전은 시니어 선교사로* (서울: 죠이선교회, 2007).

는 자들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만든 조직이다. 선교란 반드시 해외선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옆집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의 옆집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거리가 멀고 가깝고, 문화가 같고 다르
 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모든 기회 가운데 자신의 능력만큼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⁴⁸

이현모는 “선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⁴⁹라고 했다. “아무리 주일에 정한 장소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할지라도 선교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선교가 없으면 자신의 거룩하고 고상한 종교적 욕구를 채우는 종교적 취미 활동에 불과한 것이 된다고 했다. 교회는 하나님 맡기신 사명 곧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⁵⁰이기에 본질적 사명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

선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코로나 상황은 선교가 선택 과목인 줄 알았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교를 교회의 필수과목으로 전공을 바꾸어 주시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열심이다. 선택 과목에서 필수 과목으로 바꾼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교를 이어갈 것이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선교에서 선교사들을 재배치하는 하나님의 작업 시간이며, 선교 회복의 전략을 현대에 맞게 재설정 하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이다.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는 작업 시간, 성도들의 선교관을 하나님의 선교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시간들이며, 하나님 나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시간들이다.

한국 교회에 선교의 열기가 일어났던 시기가 있었다. 1970 년부터~2010년 사이였다. 그러나 2015년 즈음부터 한국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는다. 선교사들

⁴⁸ Ibid.

⁴⁹ 이현모, “교회는 단지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기독일보* (2014. 7. 30).

⁵⁰ Ibid.

을 파송하는 대신 단기 선교로 대체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교의 열기가 식어진 이유는 선교를 교회의 사명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 선교가 교회 부흥과 목회에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선교를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지만 성장의 수단이 아니다. 아이가 살다가 보니 어른이 되는 것이지, 삶의 목표가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의 사명은 선교이고, 그 사명을 수행하다 보니 교회가 성장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선교는 교회의 비즈니스 품목이 아니다. 비즈니스는 이윤을 남겨야 하지만 교회는 더 많이 퍼주고 나누어 주어야 하는 곳이다. 주는 것이(Giving) 선교의 출발점이다. 선교를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선교를 교회의 비즈니스 품목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레너드 스위트는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그의 저서 “So Beautiful”에서 주장했다. 그 세 가지는 “환대(hospitality), 정직성(honesty), 고향(home)”이다.⁵¹ “선교적 공동체는 낯선 이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선교의 대상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선교의 대상은 우리 ‘밖’에 있기 때문이다. 나와 다른, 나의 조건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신적 영역에서 모두 발견될 수 있다. 제1세계이건 제3세계이건 구원의 복음에 낮설고, 이 복음에서 소외된 자들이 우리가 ‘환대’를 베풀어야 할 영적 친구들이다.”⁵²

두 번째 요소인 “정직성은 겸손한 자세로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데서 시작된다. 많은 경우 선교적 노력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

⁵¹ Leonard Sweet, *So Beautiful* (Colorado Springs, Co: David C. Cook, 2009), 76.

⁵² 김영래, *미래 교육 목회*, 46.

고 가르치는 자들의 우월의식에 기인한다.”⁵³ 아프리카에서 한국인들이 현지인들을 “깜둥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그것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선교사들은 “깜둥이”라고 호칭하지는 않지만 그들 안에 현지인들을 비하하고 자신이 우월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모습을 종종 접할 수 있었다.

레너드 스윗 박사는 “우리의 고향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라고 했다”⁵⁴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 존재 이유이며 그 목적이다.

선교사의 소명과 본질

① 선교사의 소명

교회의 사명인 선교를 전방에서(Front) 수행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들의 소명의식은 하나님의 선교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주제이다. 선교사의 직을 소명의식이 아닌 직업의식으로 생각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이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교회의 오류와 실패들이 거듭되고 있다. 기독교 선교사로서의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사람들의 응답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에 대한 경험과 확신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선교사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선교와 복음의 가장 본질적 핵심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타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선교사의 부르심 곧 소명의식이기 때문이다.

⁵³ Ibid., 48.

⁵⁴ Ibid., 50.

“성경 한권이면 충분하다” 고 주장하는 조병호는 “성경에는 대략 2,000년의 시간과 1,500여 곳의 공간 그리고 5,000 여명의 인간이 들어 있다.”⁵⁵고 하면서 성경을 통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통으로 성경을 보면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보인다.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모세 시대에 형성되는 제사장 나라와 5대 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완성된다.”⁵⁶ “성경은 개인적이며, 가정적이고, 민족적이며 동시에 모든 민족적 책이다.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 는 이야기부터 ‘5대 제국을 포함한 모든 민족’ 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고 있다.”⁵⁷ “성경을 통으로 살펴보면서 깨닫는 두 가지가 있다. 첫 째는 한 개인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소중하게 평가 된다는 것이며, 둘 째는 천하보다 귀하게 평가된 바로 그 개인에게 민족과 국가를 ‘선물’ 로 주셨다는 것이다.”⁵⁸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향해 가고,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To the Cross, From the Cross) 나라”⁵⁹ 라고 할 수 있다. “구약의 제사장 나라는 십자가로 가는 것이고,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로부터 온 것이다. 십자가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십자가로 가는 것은 속죄와 용서 그리고 구원이다.”⁶⁰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교사이다. “구약의 제사장 나라 제사를 하나님 나라 예배로 바뀌게 한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다.”⁶¹ 하나님의 선교는 십자가 중심이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다. 그중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을 앞둔 그

⁵⁵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16), 18.

⁵⁶ Ibid, 24.

⁵⁷ 조병호, *성경과 5대제국* (서울: 통독원, 2019), 350.

⁵⁸ Ibid, 350.

⁵⁹ 목회학 박사과정 강의, 조병호 교수, 2021년 8월 04일, Topics in Pastoral Theology 강의. 내용 중

⁶⁰ 조병호, *통성경길라잡이*(개정증보판3쇄), 통독원, 2021, 19.

⁶¹ Ibid.

긴박한 밤에 이루어졌다.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이 시작된 이래 1,400년이 지나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하에서 그 유월절에 십자가형을 당하셨다.”⁶²

조병호는 “구약의 다섯 가지 제사를 네 가지 형식과 세 가지 방법으로 드리던 제사가 완성된 것은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이다.”⁶³ 라고 했다. “구약에는 다섯 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이다. ‘번제’는 전체를 태워 바치는 제사이며, ‘소제’는 농작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로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이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 화목을 위해 드리는 제사로서 특징은 암수 구분 없이 드리는 것이며, 제물의 일부만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고기는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먹는 제사이다. 화목제에는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 서원한 내용을 이행할 때 드리는 서원제, 감사한 어떤 일보다는 하나님 그 자체에 감사해서 드리는 자원제가 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즉 율법을 어김으로 죄를 범했을 때 죄를 깨닫고 죄를 속죄하며 드리는 제사이다. ‘속건제’ 부지중에 하나님의 성물이나 계명을 범했을 때, 부지중에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제사를 의미한다. 이 다섯 가지 제사는 네가지 형식으로 드린다. 첫 째 불로 태워 드리는 화제, 둘째 요제는 예배자가 자신의 손 위에 제물을 올려놓은 후 제사장이 예배자의 손 아래 자신의 놓아 받친 후 예배자와 제사장은 함께 제물을 위아래 그리고 앞뒤로 흔들다. 요제는 십자가 형식으로 흔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하였다. 셋 째는 높이 들어 올리는 거제이며, 마지막 넷 째는 붓는 제사 방법으로 전체가 있다. 이런 네가지 제사 형식은 세가지 방법으로만 드러져야 했다. 첫 째 만드

⁶² 조병호, *성경과 5대제국*, 300.

⁶³ 목회학 박사과정 강의, 조병호 교수, 2021년 8월 04일, Topics in Pastoral Theology 강의. 내용 중

시 제물이 있어야 한다. 둘 째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셋 째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서 드려져야 한다. 다섯가지 제사와 네가지 형식과 세가지 방법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다. 즉 구약의 제사장 나라 제사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예배로 수렴됨을 의미한다. 또한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과 ‘왕같은 제사장’ 의 직분으로 죽으심으로 결국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셨음을 의미한다.”⁶⁴

선교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과의 동역으로 이방 나라에서 이방 민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선교사이다. 선교사의 소명 의식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선교사 훈련을 받는 것보다 중요하고, 선교 단체 가입하는 것 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파송 교회를 찾는 것과 후원을 일으키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이다.

② 선교사의 본질

선교사 그들은 누구인가? 선교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소명)을 받은 사람들로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의 십자가 죽으심”을⁶⁵ 타민족,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에게 전하여 주는 사람들이다.

곽희문이 정리한 선교사의 정의는 참으로 흥미롭다.

선교사는 훈련된 앵무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라는 이름만 전하면 되는 것이 전도(선교)라면 복음을 전하기 위험한 나라에는 잘 훈련된 앵무새를 보내

⁶⁴ 조병호, *통성경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21), 323.

⁶⁵ 고린도전서 2:2 -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지저귀게 해도 선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새는 안 되고 반드시 사람이 가서 전해야 하는 복음이라면 사람만이 갖는 절실함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⁶⁶

그의 지적은 영혼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 나라 즉 구원에 대한 절실함이 있는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혼에 대한 절실함이 없는 사람은 선교사가 아니라 앵무새 같은 존재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드시 사람이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그의 지적은 인터넷, 미디어 그리고 통신이 매우 발달 된 오늘 교회와 선교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앵무새를 미디어, 인터넷, IT, 통신 등으로 바꾼다면 그의 지적은 충분히 동의 또는 논쟁거리가 된다. 나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 제시 방법을 비대면보다 대면을 더 선호하는 편이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인터넷과 온라인 활동을 선호하는 시기에는 그의 지적은 충분히 고민하고 연구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선교는 주는 것”이라는 정의 아래 팬데믹 이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거나,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 보내는 (Flowing life) 주는 사역을 대면으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주는 방법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온라인 बैं킹 (Online Banking)으로 흘러 보내는 (Flowing)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We know that the law is good if one uses it properly.)” 라고 했다. 적법하게(properly) 라는 말은 ‘체대로, 알맞게, 적당하게’ 라는 뜻이다. 반대로 말하면 적법하게 쓰지 않으면 나쁜 것이란 말도 된다. ‘법이 좋다, 법이 나쁘다’ 라는 평가는 법의 내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을 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좋게도

⁶⁶ 광희문,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아가페북스, 2013), 62

쓰여질 수 있고, 나쁘게도 쓰여 질 수 있다는 말이다. 선교사가 누구인가에 따라 앵무새를 잘 사용하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선교사 자신이 앵무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선교사란 누구인가? “선교사는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다.” 소명의식이 분명한 선교사에게 가난과 부요함, 불편함과 편안한 환경은 이슈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도리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있는가?” 라는 질문과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라는 고민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다.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가난하게 하시거나 궁핍하게 하시어 비참하고 초라함을 느끼게 하시지 않는다고 나는 감히 나의 선교사 30년의 삶을 통해 말 할 수 있다. 성경은 “일 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⁶⁷고 하셨다.

선교사로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풍부한 재정을 허락하셨다. 현대 교회의 관점에서 선교사의 부요함은 이질감을 느끼게 하고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한다. 성경적 부유함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측정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부족하지 않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⁶⁸ 라는 표현도 “No want” 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고백한 것이며, 바울도 이와 비슷한 선포를 하였다.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⁶⁹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⁷⁰ 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Abram had become very wealthy in livestock and in silver and gold.” 라고 했다. 이미 가

⁶⁷ 디모데전서 5:18

⁶⁸ 시편 23:1 - “여호와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⁶⁹ 빌립보서 4:19 -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⁷⁰ 창세기 13:2 -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Abram had become very wealthy in livestock and in silver and gold.

지고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가지게 되었다(had become)” 라고 기록한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다니엘도 왕궁 음식을 먹으며 귀족들의 옷을 입고 생활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리게 한 선교사였다.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 자기의 경비로 회사 일을 하지 않는다. 회사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월급을 주지 못하는 회사를 위하여 일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일꾼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 주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기 위해 보내진 사람들, 간 사람들(Go)의 필요를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약속하셨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딤후 5:18)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딤후 2:4) 라는 말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는 의미이다. 선교사는 교회와 함께 협력하여 일하지만 교회에 고용된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선교사들의 필요를 공급하시지만 교회가 선교사들의 고용주는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삶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다. 선교사로서 소명이 있고, 선교사의 정체성이 확고하다면 그의 삶은 “믿음으로” 라는 신앙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하나님의 의식하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이삭” 을 대표적인 예로 말하고 싶다. 이삭은 믿음을 잠재적 학습을 통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웠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된(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이삭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삭이 묶여서 모리아 산의 제단에 순순히 누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 곧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⁷¹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보여 지는 것들은 묵상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삭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이다.”⁷² 당시에는 문자로 쓰여진 성경이 없었다. 그래서 그가 들에서 묵상했다는 것은 “과거의 하나님 곧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과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믿음을 기도로 연장시킨다. 아기가 없는 리브가를 위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⁷³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을 주셨다. 이삭은 삶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교사적 삶을 살았다고 이해 할 수 있다. 선교사로 소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그런 삶은 믿음과 기도라는 열매로 표현 된다.

③ 선교의 현장은 어디인가?

선교적 변방만이 선교의 현장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다.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면 구원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선교사이

⁷¹ 욥기 1:21 -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⁷² 창세기 24:63 -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⁷³ 창세기 25:21 -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고, 그들의 삶의 현장은 선교의 장소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선교의 현장을 선교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 Mission

M 1 - 같은 문화권에서 행하는 선교적 활동이다. 이것은 전도라고 이해되는 지역에서 행하는 활동이다.

M 2 - 유사 문화권에서 선교적 활동이다

M 3 - 다른 문화권에서 선교적 활동이다

(2) Frontier Mission

F1 : “복음주의자 비율이 5%이상-10% 미만인 경우이다. 서아프리카 지역과 중국이 해당하는데, 이 지역들은 F2, F3 지역과 접하고 있으며 주로 무슬림들이 많은 나라들과 접하고 있다.”⁷⁴

F2 : “복음 주의자 비율이 0-5%미만이고, 박해지역이 아닌 경우이다.”⁷⁵

F3 : “복음주의자 비율이 0-5%미만이고, 박해지역인 경우이다.”⁷⁶

(3) Tent Maker (전문인 선교사)

T1 : “본국회사에 고용되어 타국에 진출한 자로 선교사로서 소명 때문에 선교지에 간 것이 아니라 회사업무상 간 경우”⁷⁷이다.

T2 : “선교를 위해 회사의 지사를 택한 자들이다.”⁷⁸ 회사 업무를 우선에

⁷⁴ http://www.gwm.or.kr/bbs/board.php?bo_table=board_67&wr_id=38

⁷⁵ Ibid.

⁷⁶ Ibid.

⁷⁷ Ibid.

⁷⁸ Ibid.

두고, 여유 시간으로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의 경우이다.

T3 : “우선순위가 미전도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본국에서 사역의 경험을 해보았고 훈련을 받고 가는 사람들이다.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로 그들의 후원과 관리를 받는 전형적인 전문인 선교사이다.”⁷⁹

T4 : “유학생, 사회사업가 등으로 비선교사 비자로 합법적으로 그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T3의 장점을 살리면서 그 단점을 최소화 한 것이다.”⁸⁰

(4) 시니어 선교사 - “은퇴 선교사”⁸¹

은퇴한 사람으로서 남은 삶의 시간과 재능을 선교에 기여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한 사람들로서 자비량 선교사로 이해될 수 있다.

| Mission / Frontier Mission / Tent Maker / Senior Missionary | | |
|---|-----|---|
| Mission (선교) | M 1 | 같은 문화권에서 행하는 선교적 활동이다. 이것은 전도라고 이해되는 지역에서 행하는 활동이다 |
| | M 2 | 유사 문화권에서 행하는 선교적 활동이다. |
| | M 3 | 다른 문화권에서 행하는 선교적 활동이다 |
| Frontier Mission (전방 선교) | F 1 | “복음주의자 비율이 5%이상-10% 미만인 경우이다.” ⁸² |
| | F 2 | “복음 주의자 비율이 0-5%미만이고, 박해지역이 아닌 경우이다.” ⁸³ |
| | F 3 | “복음주의자 비율이 0-5%미만이고, 박해지역인 경우이다.” ⁸⁴ |

⁷⁹ Ibid.

⁸⁰ Ibid.

⁸¹ 이현모, *인생의 후반전은 시니어 선교사로*, (서울: 죠이선교회, 2007)

⁸² Ibid.

⁸³ Ibid.

⁸⁴ Ibid.

| | | |
|---------------------------------------|-----|--|
| Tent Maker (자비량 선교) | T 1 | “본국회사에 고용되어 타국에 진출한 자로 선교사로서 소명 때문에 선교지에 간 것이 아니라 회사 업무상 간 경우이다.” ⁸⁵ |
| | T 2 | 선교를 위해 회사 직사를 선택한 자들이다. 회사 업무를 우선에 두고 여유의 시간으로 선교적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
| | T 3 | 우선 순위를 미전도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자들이고, 사역의경험이 있고, 선교사 훈련을 받은 자들로서 선교 단체 또는 본국 교회로부터 후원과 관리를 받는 전형적인 전문인 선교사이다. |
| | T 4 | 유학생, 사회사업가 등으로 비선교사 비자로 합법적으로 그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T3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최소한 자들을 말한다. |
| Senior Missionary (은퇴 후 선교) | S M | 은퇴한 자로서 남은 삶의 시간과 재능을 선교에 기여하기로 결단하고 헌신한 사람들로서 자비량 선교사로 간주한다. |

<표2> 선교의 분류

선교는 소통(communication)이다. 복음은 소통이라는 수단으로 전달되어 진다. 타문화권, 타민족과의 소통에서 우선되는 것은 언어이다. 언어는 단순히 말(Language)이 아니고 문화이다. 그러므로 언어는 문화의 로드맵(Road Map)이다. 복음을 명확하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알아가고 배우면서 그들과 문화를 통해 삶이 공유되어야 한다. 선교는 그들의 삶을 세상 문화에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옮겨 심는 것이기 때문이다. 곧 선교는 “문화 옮겨 심기”라고 보아도 된다. 이런 관점에서 선교사들은 자국의 모 교회 (Mother

⁸⁵ Ibid.

Church)에서 교회의 프로그램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사역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는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하나님 나라 문화의 모형이 되어주어야 한다. 선교사들이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선교지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와 선교 단체의 임무이다.

하나님 문화로 선교사들에 대한 교회의 관점들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명제들이 있다. “선교사는 꼭 가난해야 하는가?” “꼭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이 훌륭한 선교사들인가?” “선교의 대상은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이어야만 하는가?” “가진 자와 배운 사람들의 구원은 소외되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용납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편협된 정보와 잘못된 가르침이 낳은 산물이다. 성경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답을 주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하나님의 선교적 눈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답을 얻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다만 선교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과 고무적인 교회의 가르침들이 위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고 혼돈과 오해를 주고 있을 뿐이다.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이 소중하고 귀하듯이, 무신론적인 부자들과 최고의 배움을 가진 사람들의 영혼도 소중하고 귀하다. 그들도 구원을 얻어야 할 선교의 대상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수고는 값지지만, 모든 것을 갖춘 도시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하여야 하는 사역이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선교사는 꼭 가난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준 듯 하다. 또한 바울은 디모테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강조하면서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배운 자

도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선교는 시행되어야 한다는 답을 주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는 먼저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권고한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⁸⁶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소중하다고 강조하였다.

가난한 나라에도 선교사를 보내야 하지만, 부유한 선진국에도 선교사를 보내야 한다. 선교사의 입국을 허용하는 나라들에도 선교사를 보내야 하고, 선교사 입국을 거절하는 나라들도 선교사를 보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선교사들은 고생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 또한 올바르지 않은 사고이다. 선교는 환경이 열악하여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에”⁸⁷ 어려운 것이다. 선교사는 환경이나 조건의 열악함을 이미 각오하고 고국을 출발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피선교지의 열악한 문화적 환경이나 생활의 불편스러운 조건들을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다. 전기가 없어도, 날마다 물 공급이 끊어져도, 생필품 구입이 원활하지 않아도 곳곳에 위험한 것이 도사리고 있어도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미 그런 것들은 각오하고 그 땅을 밟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보는 것이 즐거움이고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고생하십니다.”라는 인사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전 세계에 보내짐을 받은 3만여명의 한국인 선교사들 중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에서 사역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문화가 발달된

⁸⁶ 골로새서 3:11.

⁸⁷ 로마서 1:28 -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부유한 나라에서 사역하는 분들도 계시다. 어디 지역의 선교사님이 더 고생하시고, 더 홀륭하시다는 편견은 이제 버려야 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마음이 더 열려져 있어서 복음 증거에는 수월하지만, 발전된 나라에서는 생활이 조금 더 편리한 것이 있는 반면 복음에 대해 단혀진 마음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가난한 지역에서 사역하는 것 못지않게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모든 선교사들은 소명과 사명의식으로 주어진 은사에 맞게 귀하게 그 땅을 밟고 계신 것 같아 감사하다.

아프리카의 선교 회복

① 성경에 나타난 아프리카인들 (Black Presence)

아프리카 사람들의 이야기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도 등장한다.

성경에서 아프리카의 지명이 최초로 거론된 곳은 애굽(Egypt)이다. 자기 땅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그 땅의 기근을 피해 “애굽”⁸⁸에 가므로 아프리카가 성경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 주제는 하나로서 단순하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⁸⁹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의도에도 그러한 목적을 볼 수 있다. 최초의 아프리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부터 찾아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부르셨고”,⁹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하여 새로운 땅으로 출발하여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이르렀다.”⁹¹

⁸⁸ 창세기 12:10-11.

⁸⁹ 레위기 26:12 -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신 29:13, 사 41:10, 고후 6:16, 히 8:10, 계 21:7

⁹⁰ 창세기 12:1 -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⁹¹ 창세기 12:5 -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아브라함을 선교사적 눈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은 아프리카의 문화 때문이기도 하다.

영어권 문화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와 비슷한 스토리가 있다. 길을 가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이 있으면 마주 오는 사람을 향해 손을 들고 “헬로(Hello)” 하고 인사를 건넨다. 이것은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니요, 보시오 내 손에 위험한 무기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안전을 위한 방어적 제스처 라고 한다. 그렇게 생존의 이유가 오늘날 자연스럽게 모르는 사람에게도 헬로(Hello) 하며 인사하는 문화가 되었다. 아프리카 문화에도 이런 방어적 제스처가 있다. 이 문화는 내 경험으로 볼 때 케냐 뿐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에서 일반화 된 것 같다. 이방인이 자기들의 지역에 들어왔다는 소식은 굉장히 빨리 퍼진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이 이방인으로 새로운 지역을 방문 했을 때 또는 여행 중이라면 그곳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자기소개를 상세하게 하여야 한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자기소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나는 적이 아니라 우호적인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어야만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케냐 사람들의 자기소개에는 정해진 형식이 있다. 먼저 자기 이름을 말하고, 어디서 왔는지, 아내가 몇 명인지, 자녀가 몇 명인지 말한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지 언제 떠날 것인지를 말한다. 종교가 있으면 그것도 밝힌다.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 그 지방에 있으면 꼭 거론을 한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시간에 상당히 자유한 사람들이다. 새로운 사람이 자기소개를 할 때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짧게 하면 오히려 의심을 한다. 때로는 공동체가 그 사람에게 알고자 하는 정보 수집을 위해 질문을 많이 한다. 오히려 자기소개를 오래 그리고 상세하게 할수록 듣는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공동체가 안정감을 느낀다. 이 문화는 결혼식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음을 경험했다. 케냐에서 첫 결혼식 주례를 부탁 받고 장소에 갔는데 아무도 없었다. 서너 시간이 지난 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오전 9시라고 했던 결혼식은 12시가 다 되어서 시작되었고, 나는 한국 문화가 아직 남아 있던 시절이라 신부가 서 있으면 힘들어 할 것 같아 주례 설교를 짧게 마치고, 결혼 서약 등 순서를 빠르게 진행하여 한 시간 만에 모든 결혼식을 마쳤다. 나로서는 그들에 대한 배려였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신랑 신부와 양쪽 혼주들로부터 기분 나빠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내색하며 왜 그렇게 빨리 끝냈느냐는 항의를 받았다. 잔치 날인데 내가 망쳤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배운 문화는 결코 잊혀 지지 않는다. 그 이후 나의 결혼식 주례는 통상 4시간이 넘었다. 그래서 그날은 아예 아침을 아주 든든히 먹고 약간의 간식을 주머니에 넣고 간다. 언제 식사를 줄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문화이다.



<그림1> 결혼식 주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이 문화가 적용되었을 것이다. 문화는 어느 날 하루 아침에 탄생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을 통해 경험과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생활양식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혼자가 아닌 대가족을 이끌고 이방인으로 애굽에 들어간 것이다. 당연히 안전을 위한 문화적 자기소개를 했을 것이다.

“자기 이름을 밝히고 나이를 밝힌 후 자기 가족들을 차례로 소개 했을 것이다. 내 아내 사라이다. 내 조카 롯이다 이렇게 가족 소개가 끝나면 어디서 왔고 왜 왔는지를 말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 소개를 했을 것이다 “내 고향은 ‘갈대아 우르’ 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라고 하셔서 “하란” 으로 옮겨와 살다가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라고 말씀하셔서 내 나이 칠십 오세에 가나안으로 가서 살던 중 그 땅에 심한

기근이 일어나 애굽으로 온 것이다.⁹²” 이런 아브라함의 자기소개는 자연스럽게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는 선교적 행위가 되었다.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 찾아 볼 수 있다. 그 인원 또한 수백만 명에 이를 것이다. 성경 시대에 아프리카 사람들의 존재와 그들의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증명된다. 아프리카 사람들의 존재는 “Arabia, Elam-Persia, Greece, India, Phoenicia, Crete, Mesopotamia, Cyprus, Canaan, Egypt and Cush” 에서 볼 수 있다.⁹³ 아브라함과 이삭은 여러 차례 아프리카 땅인 애굽과 접촉한 흔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모세의 출현도 아프리카 땅 애굽이었다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성경에 출현하는 사람들의 이름에서도 아프리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이름이 “모세” 이다. 모세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 애굽식 이름이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인 “비느하스와(Phinehas) 홉니(Hophni)” 에서도 아프리카의 흔적을 볼 수 있다. 홉니 라는 이름은 Black Negro (흑인)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 이름 속에는 “아프리카와 유대인 (Blacks and Jews)” 의 이름이 섞여 있다. 그 배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다. 유대인들이 아프리카 땅에서 430년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혼합된 것이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프리카 땅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다.⁹⁴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⁹² 창세기 11:27 - 12:20.

⁹³ Walter Arthur McCray, *The Black Presence in the Bible: Discovering the Black and African Identity of Biblical Persons and Nations* (Chicago: Black Light Fellowship, 1990), 17

⁹⁴ 출애굽기 12:40 -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사백 삼십년이라.”

② 하나님의 선교와 아프리카인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는 문화를 통해서 전해져 왔다. 선교를 다른 말로 정의하면 “문화 싸움”이다. 선교는 세상 문화에 젖어 사는 사람들을 성경 문화 곧 하나님의 문화로 초대하는 것이다. 가나안 정복은 땅 뺏기 전쟁이 아니라 그 땅에 뿌리내려져 있는 우상 문화를 부수고 하나님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작업의 시간, 세월이다.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선교사와 선교단체가 하나님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피선교지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자세와 그 문화를 무시하거나 경시 여기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도 중요한 선교사의 자질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아프리카에서 보내셨다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진 사람도 아프리카 인이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 속에 모든 민족을 사용하시는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복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던 아프리카와 그 사람들이 지금은 피선교지 땅, 피선교인이 되어 있다. 여기서 나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통해 “Back to the Jerusalem”이라는 슬로건을 이해해보려고 한다. 하나님의 복음은 먼저 유대민족에게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다시 팔레스틴에서 헬라 문화권으로, 헬라 문화권에서 로마 사회로, 로마 사회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남미로, 남미에서 북미로, 북미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다시 아프리카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시 팔레스틴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여정이라고 믿고 있다.



<표3> 선교의 흐름

아프리카 미래 선교

하나님의 선교 여정을 미래 선교 전략으로 재조명해 보아야 한다. 미래 교회의 방향을 이야기 할 때 “다시” 또는 “초기” 라는 의미를 가진 “Re -” 라는 단어를 컴퓨터를 reset 즉 “초기화” 하듯 미래 선교의 방향을 과거에서 찾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볼 수 있다.⁹⁵ 미래 선교 전략을 과거 선교 전략인 하나님의 선교에서 찾는 것이다. 재부팅의(Re-) 목적은 “본 모습” 을 회복하는 것이며 “처음 장소” 로 돌아가는 것이다. 현재의 모습을 보려면 “과거의 모습” 을 보아야 (Remembering the future Remembering the past) 한다.⁹⁶ 이런 의미에서 성경 시대 아프리카 사람들이 선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이

⁹⁵ 김영래, 목회학 박사 강의 중에서 (2020년 7월 21일).

생각하는 특별한 사람들이란, 교육을 많이 받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복음과 아프리카인의 밀접한 연관성을 이들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아프리카가 어떻게 기여 하였는지를 가르쳐 주어 선교의 동기를 심어주는 것이 미래 선교의 방향 중 하나라고 나는 생각한다. 선교는 주는 것을 시작으로 받은 사람들이 주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까지 이며 그 일의 모델이 선교사이다. 바울은 엡 5:1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고 권면 하였다. “본받는 자가 되라.” 는 말은 흉내 내는 사람이란 말이며, 따라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흉내 내고, 따라할 때 그 모델과 똑같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점점 비슷해 가는 것이 흉내이고 닮아가는 과정이 따라하는 것이다. 그렇게 선교사가 모델이 되어 하나님의 선교와 비슷해져 가고 닮아가게 하여야 한다. 나의 30년 주는 삶이 이들에게 흉내 내고 따라하게 하고 싶은 모델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나의 선교 30년의 사역을 다음 장에서 다루려고 한다.

제 III 장

아프리카 선교사 30년의 사역(Giving) 이야기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분리하여, 세가지 사역의 초점을 “주는 것(Giving)” 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려 한다.

영적인 것

① 아프리카로 부르심과 기도원 사역

부르심 (Calling)

1975년 8월 어느 여름 날 주일 저녁 예배에 (금란감리교회 - 김홍도 담임목사님) 참석하였다. 그 날 아프리카에서 오신 미국인 선교사님은 설교 후 아프리카 선교사의 calling을 하셨고,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한 후에도 아프리카 선교의 꿈을 계속 품고 있었다. 그렇게 14년을 기도하며 기다리던 어느 날 아프리카를 향한 문을 열어 주셨다.

당시 3살이었던 딸과 임신 5개월의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케냐 땅을 밟은 것은 기적같은 주님의 은혜였다. 우리 부부는 출산과 향후 자녀 교육은 생각도 못했었고 오로지 “검은 영혼을 구원하겠다” 는 열망으로 파송 교회도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한국을 출발하여 미지의 땅 케냐에 도착했다. 이런 우리의 행동을 믿음을 제외시키고 본다면 무작정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우리 세 식구는 그렇게

케냐를 향해 무작정 출발하여 1990년 5월 10일 미지의 땅 아프리카에 도착하여 30년이라는 시간을 그 땅에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복음을 나누는 사역을 살았다.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신 일들은 기적 그 자체였다. 금식 기도원을 세우고, 신학교를 설립하고 47개의 교회를 건축하며 교단을 창립하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진 것들이었다. 우리가 30년 동안 무엇 무엇을 했다고 하기 보다는 그 땅에 살았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많이 수고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고전15:10) 이기 때문이다. 그곳 사람들을 위해 우리 삶의 일부분인 30년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선교는 그 땅에 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A mission is being there with them)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임마누엘 금식 기도원 (2001년 카토로니 기도 센터로 이름이 바뀜)

하나님은 소명 후 14년이 지난 후에 아프리카로 갈 길을 열어 주셔서 케냐 Youth With A Mission 선교부에 합류 하게 하셨다. 케냐에 도착한지 3개월 만에 케냐에 있는 YWAM 한국인 지도부가 와해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케냐 현지 교단과 함께 사역하는 관계로 이끌어 주셨다. 한국지부가 와해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케냐 인근 국가인 소말리아, 수단, 말라위에서 요청(Call)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케냐에 남기를 원하셨고 동부 아프리카 최초의 금식 기도원을 설립하기를 원하셨다.



<그림2> 임마누엘 금식 기도원

당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선교는 교회 개척, 전도, 교아원, 학교 등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시절이었다.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더욱 그랬던 당시에는 “금식 기도원” 사역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생소하였고 심지어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면서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더욱이 선교에 있어서는 더 더욱 중요하다. 모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기도로 출발되어 지고, 기도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이다. 기도는 체험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요, 전도는 나의 체험을 전해주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체험이 없고, 체험이 없으면 예수를 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 사역자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선교사는 피선교지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도하는 삶이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으로 파송 받은 선교사였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이셨던 예수님의 삶은 기도였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⁹⁷ 사역하시는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셔서 기도하셨다. 새벽에 기도하셨고⁹⁸,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고⁹⁹,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¹⁰⁰, 자주 홀로 있으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¹⁰¹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¹⁰²,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실 때에도 기도하셨고¹⁰³,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다.¹⁰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도 기도하셨

⁹⁷ 마태복음 4:1, 2 -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⁹⁸ 마가복음 1:35 -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⁹⁹ 마가복음 6:46 -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¹⁰⁰ 누가복음 6:12 -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¹⁰¹ 누가복음 5:16 -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¹⁰² 마태복음 14:19 -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¹⁰³ 마가복음 7:34 - “하늘을 우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¹⁰⁴ 요한복음 11:41 -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다.¹⁰⁵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도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다.¹⁰⁶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이다.

금식 기도와 선교

기도와 선교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 성경 최초의 선교사 바울이다. 바울은 기도로 신앙을 출발하여 기도로 선교의 사명을 수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서신에서 입증하고 있다.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만난 후 그가 먼저 한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¹⁰⁷이었으며, 선교지 빌립보 성에 도착해서도 기도 할 곳을 먼저 찾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¹⁰⁸ 전도 여행 중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다.¹⁰⁹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금식하며 기도 한 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웠다.¹¹⁰

구약 성경에도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어져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죄일을 정하여 하루를 금식하였고,¹¹¹ 다윗 왕은 국가의 중차대한 일이 생기면 금식하며 기도했고,¹¹²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싸움에서 실패한 후 금식하여 기도하였고,¹¹³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라반에게 갈 때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기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

¹⁰⁵ 마태복음 26:36-46.

¹⁰⁶ 누가복음 23:34, 46.

¹⁰⁷ 사도행전 9:9.

¹⁰⁸ 사도행전 16:13.

¹⁰⁹ 사도행전 27:33.

¹¹⁰ 사도행전 13:1-3.

¹¹¹ 레위기 16:29-34, 23:27-32, 민수기 29:7-11.

¹¹² 사무엘상 3:35.

¹¹³ 여호수아 7:6.

고,¹¹⁴ 에스더는 민족을 하만의 손에서 구하기 위해 금식했고,¹¹⁵ 다니엘은 열방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금식하였고,¹¹⁶ 모세와 엘리야도 40일 금식하며 기도를 하였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사슬을 끊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셨다.¹¹⁷ 이렇게 성경에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소개되어 있다.

케냐 땅을 밟은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내게 아프리카 성도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삶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것을 주는(Giving)” 금식기도원을 세워야 한다는 비전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4년을 기도해 오던 중, 우연히 마차코스 지역 군수를 식당에서 만나게 하였고, 땅이 생기게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는 말과 내가 하나님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다는 말을 남기고 헤어졌다. 한 달도 채 가기 전에 군수에게서 온 연락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는 시간이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케냐 대통령이 군수를 불러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하라고 300 에이커의 땅을 주었다고 하며 당신이 기도하여서 일어난 일 잤다고 기도원을 만드는데 사용하라고 5 에이커의 땅을 기증해 주었다. 이렇게 기적으로 세워진 “임마누엘 금식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영광을 나타내셨다. 기도원에 와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질병을 고치셨고, 깨어진 가정들을 회복하셨고, 허물어진 개인의 삶을 새롭게 세워 주셨다. 기도원은 입 소문을 타고 케냐 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까지 소문이 퍼졌다.

하나님은 내게 기도원을 세우게 하시므로 영적인 것을 “주는 사역”을 하게

¹¹⁴ 창세기 24:33.

¹¹⁵ 에스더 4:16.

¹¹⁶ 다니엘 9:3-19.

¹¹⁷ 이사야 58.

하셨습니다. 청년시절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기도원에 갈 수 없었던 아픈 기억을 가진 나는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무료로 금식 기도원을 오픈하였다.

빨래하는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물과 전기는 아주 귀한 것이다.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은 큰 가방을 한 두 개씩 가지고 왔었다. 등록하고 다음날부터 가지고 그들은 가지고 온 옷들을 세탁하기 시작했다. 우리 기도원에는 물이 펄펄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태프들은 물 값이 많이 나올 테니 세탁하지 못하게 하자고 제안하였지만 나는 그것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이니 그냥 두라고 하였다. 세탁을 마음껏 하고 난 후 그들은 개인 기도실을 찾기 시작했고, 하루에 세 번씩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어갔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을 경험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밤에 잠자리 오는 사람들

스태프들로부터 기도원에서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교회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다. 아침에는 사라지고 밤에 교회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정문에서 못 들어오게 저녁에는 문을 잠그자고 제안하는 스태프들에게 그것도 그냥 두라고 했다. 한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이셨던 분이 술이 잔뜩 취해 갈 곳이 없어서 교회에 몰래 들어가 의자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 예배 소리에 잠에서 깨어 하나님을 만났고 목사가 되었다는 간증이 생각났다. 하

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실지 우리는 모른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을 수도 있으니 그냥 밤에 와서 자게 하자고 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 왜 우리 쫓아내지 않았느냐 하는 사람도 있었고,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회개하고 구원 받은 사람도 있었다.

갈 곳이 없어서 온 사람들

옆 나라 우간다에서 온 중년의 여인이 갈 곳이 없으니 이곳에서 청소라도 거들 테니 있게 해 달라고 사정을 한다. 있을 만큼 있어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다. 얼마 후에 그 여인의 사정을 들어보니 에이즈 판정을 받고 남편과 자식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자기나라에서 살 수 없어서 케냐로 넘어왔는데, 사람들이 마차코스에 가면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 기도원에 가 보라고 해서 왔다는 것이다. 금식기도원을 하나님은 이렇게도 사용하셨다. 이 여인은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선교 사역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것이 있게 하였고, 영적인 것을 주는 것은 우리 선교 사역의 핵심이 되었다.

② 영혼 구원 : 전도와 교회 개척

하나님은 나에게 줄 것이 있게 하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전도의 열정이었던 것 같다. 영적인 것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여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전도 사역일 것이다.



<그림3> 순회 전도 사역

전도 사역은 정기적 순회 전도여행으로 시작되었다. 내가 전도한 젊은이들과 케냐 현지 교회에서 이미 구원받은 청년들로 팀을 만들었다. 가장 효과적인 선교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팀 사역은 현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물론 피선교인들과 팀을 이루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같은 민족이라도 각자의 배경이 다르고, 성장 과정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팀을 이루어 함께 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자신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예수님의 선교 전략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팀 사역이었다.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팀을 만드신 것이다. 제자들을 부르셨고 날마다 늘어나는 제자들을 위해 먼저 부르신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면서, 팀 사역에는 행정이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는 것도 보여주셨다.



<그림4> 전도 팀원들

예수님의 팀 사역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오병이어와 칠병다어”의 기적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팀 사역의 모형이기도 한다. 또한 “오병이어, 칠병다어” 기적에는 “주는 것과 받는 것(Giving and Taking)”이라는 하나님의 선교가 담겨져 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떡을 받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오천 명을 먹이실 때에도¹¹⁸, 사천 명을 먹이실 때에도¹¹⁹ 같은 방법을 사용하셨다.

¹¹⁸ 마태복음 14:19 -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¹¹⁹ 마태복음 15:36 -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그림5> 결신 기도하는 모습



<그림6> 노상 전도하는 모습



<그림7> 맞사이 부족 전통 복장



<그림8> 맞사이 아이들



<그림9> 기도로 눈을 치료 받은 할머니



<그림10> 어린아이의 영혼도 소중하다



<그림11> 호롱불 아래에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셨고(Give), 예수님에게 받은 제자들은(Take) 그것을 무리에게 주었다 (Give) “주고 그리고 받는 것 그리고 다시 주는 것 (Give and Take and Give)” 가 순환되고 있는 모형인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다.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팀 사역이었다. “나누어 주라”¹²⁰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대한 전략 제시라고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의 선교는 팀 사역 전략으로 행하여 졌다. 예수님은 혼자 하지 않으셨다 함께 하셨다. 역할을 분담하여 나누어 하는 것이 팀 사역이다. 하나님의 구속사인 선교에는 한 사람만의 영웅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약 성경에서 팀 사역은 모델이 있다. “사도 바울” 이다. 바울의 선교 사

¹²⁰ 마태복음 15:19 -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역은 팀으로 하였다. 하나님의 선교가 팀 사역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좋은 모델이기도 하다.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마가 등등 바울은 혼자 아닌 함께하는 선교 사역 전략을 사용하였다. 바울과 함께 한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특이하고 특별한 팀원이 한 사람 있었다. 마가에 대해 잠깐 언급해 보려고 한다. 마가는 구브로 (지중해의 보석인 사이프러스 섬) 출신이다. 그는 바나바의 생질(조카)로서 40대 후반인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동행에서 실패한 사람이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한 요인이었던 사람이었다. 그런 마가가 60대 초반인 바울과 함께 로마 옥에 갇힌 사람이 되었고¹²¹, 바울이 60대 후반이었을 때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 바울이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¹²² 또한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¹²³ 이었다고 한다. 마가는 아무도 바울을 받아주지 않을 받아 줄 수 있었던 삼촌 바나바의 포용성과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는 사역자인 베드로의 영적 영향력과, 복음 증거를 위해 모든 것을 해로 여긴 바울의 선교의 열정을 영향 받은 사람이다. 마가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교에서 이루어진 팀 사역(Team Spirit)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세 거장들의 유대관계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는 세 명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어떤 선교사도 독불장군 일 수는 없다. 선교 30년의 경험으로 볼 때 피선 교지에서 모든 선교사님들은 현지인들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도움을 받는다. 그들의 협조와 도움이 없이는 어떤 선교사도 사명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생존

¹²¹ 골로새서 4:10 -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¹²² 디모데후서 4:11 -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¹²³ 베드로전서 5:13 -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조차가 쉽지 않다. 선교사의 기본 의식에는 “혼자 한다는” 영웅적인 자세가 아니라 “함께 하는” 팀 정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이 이룬 것이라는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현지인들의 수고와 협력을 평가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분명 팀 사역이었는데, 그 결과에는 현지인의 노고는 사라졌고 한 사람의 위대하고 영웅적인 선교사만 소개되어 지고 있는 작금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처음 만들어진 전도 팀은 케냐와 탄자니아 국경에 위치한 “나망가(Namanga)” 교회 목사님과의 만남으로 만들어졌다. 그 분의 사역의 열정과 나의 전도의 열정이 만난 결과였다. 우리는 거리를 함께 다니면 노방에서 전도를 하였고, 현지인과 이방인 두 목사의 노방 전도에 영향을 받은 청년들이 합세하기 시작했다. 나는 팀을 구성하여 그들에게 전도하는 방법과 기도의 훈련 그리고 금식기도를 함께 하면서 전도 사역에 열정을 쏟았다. 우리는 월 1회 먼 곳으로 전도를 하러 가기로 결정하였다. 10여명의 현지인 형제자매들을 교회에서 합숙하며 금식하며 기도와 전도하는 훈련을 시켰다. 그리고 감동 주신 지역으로 들어가서 3박 4일 또는 일주일씩 머물면서 그 지역에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다. 당시는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달랐다. 교통편이 열악했고, 무엇보다 물과 전기는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우리 팀은 3일 전도 훈련 후에 차량으로 특정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부터는 도보로 목표한 마을까지 걸어 갔어야 했다.

한 사람에게 배당되는 하루 생존량의 물은 500cc 정도였다. 이 물로 식수와 양치, 세면까지 다 해결하여야 했다. 몇 시간씩 작열하는 적도의 태양 아래를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찬양을 했고,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저없이 다가가 복음을 전하였다. 내게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다. 그 경험은 선교 사역의 하나의

원칙을 만들게 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나는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사진 찍기를 주저한다. 그때의 그 원칙이 아직도 내 안에 있기에 조심스러운 것이다. 길에서 마주친 케냐 남자에게 우리 대원들이 복음을 제시하고 있을 때 내가 사진을 찍었다. 그 “찰칵” 하는 소리에 그 사람은 들고 있던 창으로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왔다. 그들은 사진이 찍히면 영혼을 빼앗긴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후에 설명을 들었다. 우리 형제들이 그를 진정시키고, 설명을 하여 위기는 모면했다. 그때부터 나는 카메라를 아예 가지고 다니지 않게 되었다. 지금은 핸드폰이 카메라 기능까지 하기에 조심스럽게 사용하기는 한다. 먼저 설명하고 허락해 주면 정면에서 찍는다. 그리고 찍은 것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보여 주기도 하고,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기도 한다. 사진은 선교 현장에 민감하고 필요한 것으로 정말 지혜롭게 사용되어야 하는 도구이다.

우리들은 지역에 들어가면 교회, 교회가 없으면 학교나 마을 회관에 숙소를 구한다. 우리가 가지고 간 재료들로 스스로 취사하며, 전도한다. 하루 종일 태양아래 걸으며 전도하였기에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돌아가며 취사를 한다. 그 동안 남은 대원들은 둘러 앉아 찬양을 하거나 그 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며 기다린다. 그렇게 전도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날이 되면 누군가 한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남아서 양육하겠다고 하며 자원하여 남기로 원하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곳에 교회가 생기기를 주께 간구하고 돌아온다. 그렇게 생겨진 교회들과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을 사역자로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해 졌다. 그 필요를 위해 하나님은 나에게 신학교와 교단을 창설하게 하신 것이다.

교회 개척과 건축 그리고 교단 창설

그렇게 개척된 교회들이 30년 동안 케냐 전역에 47개가 된다. 그 중에서 몇 교회 사진들을 소개한다.



<그림12> 복음의 동산 리무루 교회



<그림13> 복음의 동산 카싱가 교회



<그림14> 복음의 동산 키바오니 교회



<그림15> 복음의 동산 티에쿠누 교회

바울의 전도 여행 전략은 내게 모델이 되어 주었다. 전도여행 일정을 마치고 그 지역 영혼들을 위해 남겨진 헌신의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나는 그 지역을 다시 방문했고 그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의 찬양과

훈련되지 않은 남겨진 사람의 어설픈 설교는 늘 나를 울게 만들었다. 선교사 한 사람만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열매는 결코 아니었다.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만든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어떤 곳은 나무 그늘아래 모였고, 사방이 뚫린 하늘만 가린 천막아래 모이는 지역도 있었다. 나무 가지를 영기성기 엮어서 예배처를 만든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에게 필요한 교회를 짓기 위해 우리는 함께 기도했고 현지인 성도들은 자기 땅을 기증하기도 했고, 또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교회에 매도하기도 하였다. 그 위에 한국 교회 성도들의 선교의 열망과 헌신으로 보내 온 귀한 재정으로 교회를 건축하여 하나님께 헌당하는 감격을 나는 47번이나 경험할 수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벅찬 감동으로 가득했고, 현지인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헌당 예배들이었다. 그 순간들이 지금도 눈에 아른거린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과 신학교를 졸업하여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 케냐 정부로부터 인준을 받은 종교 활동을 하려면 교단(Umbrella)이 있어야 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단을 창설하여 정부에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케냐 헌법 상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일에 연관된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고, 그들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하여 “케냐 복음의 동산 교회 (Gospel Garden Churches of Kenya)” 라는 교단이 창설 되었다. 교단을 창설하게 하신 후에 우리 전도 사역은 그 규모에 변화가 생겼다.

10여명의 “소규모 전도여행(Out Reach)” 을 진행하면서 마치코스, 몸바사, 키슈무 등 케냐의 10대 도시를 순회하며 대규모의 대중 전도 집회를(Crusade) 하게 되었다. 대중 전도 집회는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과 교파를 초월하여 연합하여 사역

했다. 전도 사역과 신학교 그리고 교단 창설은 “영적인 것을 주는 선교 (Giving Ministry)” 틀을 만들어 30여 년 동안 케냐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게 하였다.

혼적인 것

① 선교사 품위 유지비 (구제 사역)

“선교사 품위 유지비” 라는 말을 처음 들은 것이 1992년이였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케냐 선배 선교사이신 유부웅 박사님에게 처음 생소한 단어를 듣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었다.

선교사는 주려고 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선교사에게 도움 받기를 기대하고 선교사를 찾아온다. 그때를 대비해서 선교사는 도울 수 있는 재정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선교사 품위 유지비이다.

선교사 초년병인 나에게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피선교지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복음만이 아니고, 이들의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것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였다.” 포인트는 선교사는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줄 것을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였다. 나는 “선교사 품위 유지비” 라는 것을 “구제 사역비용” 이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부터 나는 “선교사 품위 유지비” 의 필요를 지지하는 사람이 되었고, 매월 수입 1%를 구제비용으로 따로 사용하고 있다.

“선교사 품위 유지비 곧 구제” 는 초대 교회의 선교 전략이기도 했다. 초대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었다.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보여 진 변화는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나누는 삶이었고,¹²⁴ 구제하는 일은 교회의 사역 중에 하나가 되었다.¹²⁵ 다비다라는 여자도 구제를 많이 하였다”¹²⁶고 기록하고 있고,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도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¹²⁷고 한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 후 선교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에 당부한 것도 “구제 곧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힘쓰라”¹²⁸는 것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는 기독교 성도들의 덕목이고, 하나님의 선교의 중요한 도구이다.

기근과 옥수수 나눠주기

케냐의 주식은 “우갈리”라고 옥수수를 말려서 만든 가루를 찢은 우리의 시루떡 같은 것이다. 케냐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눈다. 우기는 1년에 두 번 4월과 10월이다. 일 년 농사를 우기에 오는 강수량에 의존한다. 케냐 국토의 3/4이 반투사막 땅으로 경작이 어려운 불모지이다. 그나마 1/4의 땅도 우기철의 강수량에 의존한다. 저수지같은 시절을 갖추기가 열악한 상황이기도 하다. 해서 우기철에 비가 오지 않고 1년을 지나면 살기가 어려워지고, 2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긴다. 내가 30년을 있는 동안 극심한 기근이 2 번 있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었다. 원조와 수입해 들여온 옥수수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픽업에 싣고 지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순회하며 옥수수를 나누어 주던 기억도 있다.

¹²⁴ 사도행전 4:34, 35 -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이라”

¹²⁵ 사도행전 6:1.

¹²⁶ 사도행전 9:36.

¹²⁷ 사도행전 10:2.

¹²⁸ 갈라디아서 2:10 -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그림16> 식량 나누어주기



<그림17> 옥수수 한 깡통



<그림18> 구제 사역 : 성도들에게



<그림19> 구제 사역 : 주민들에게

옥수수는 케냐 사람들에게 아주 필수 식품이다. 지방에 있는 교회를 순회하러 갈 때에는 항상 내 차에는 2 kg 담긴 옥수수 가루 봉투들이 가득했었다.

성도들 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예배 후에 나누어 주는 옥수수를 얻기 위해 교회 예배에 온다. 그래서 식량인 옥수수 가루는 구제 목적 뿐 아니라 전도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 예배가 끝나야 나누어 주는 옥수수를 얻기 위해서 설교를 다 들어준다. 이 때가 우리에게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는 것이다.

쇼쇼 할머니 - 목사님 배고파요

내가 두 번째로 개척하여 시무하던 “키에쿠누 교회”에 “쇼쇼”라는 할머니가 계셨다. 쇼쇼는 이름이 아니다. 키부유 부족어로 할머니라는 뜻이다. 케냐는 약 59개의 크고 작은 부족들이 있으며 각 부족마다 자기들의 언어인 부족어가 있다. 우리는 초기에는 맛사이 부족에서 3년, 그리고 캄바 부족에서 10년 사역하다가 케냐를 떠나오기 전까지 17년을 사역하던 곳은 키부유 부족이었다.

키부유 부족어로 할머니가 “쇼쇼”이다. 그 할머니의 이름이 없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이 할머니는 길거리에 작은 좌판에서 채소를 팔아 살아가시는 분이다. 가족이 없는 혼자이신 할머니이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꼭 우리 집에 온다. 그리고 대문 앞에 서서 우리가 교회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나를 그곳에서 기다린다. 우리를 보면 아무 말 없이 서 있거나, 우리를 보고 웃으며 “음춘가지 니난 자아 (목사님, 배가 고파요)” 라고 한다. 그러면 아내는 말없이 집에 들어가서 음식과 약간의 현금을 그 손에 들려주며 환하게 웃어준다. 그러면 그 할머니도 “아싼데 마마 (감사합니다 사모님)” 하며 웃으며 돌아간다. 그래서 아내는 매 주일 그 할머니 드릴 음식과 약간의 현금을 준비해 두고 있다. 어떤 때는 주일이 아닌 평일에도 오셔서 “배가 고파다” 고 하신다. 양식이 떨어진 것이다. 주일에 할머니가 우리 집 앞에 안 보인다. 몸이 아파서 교회에 못 온 것이다. 그럴 때에

는 더욱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우리가 가거나, 사람을 보내어 음식을 보낸다. 이렇게 “주는 것(Giving)”은 선교에서 떨어뜨릴 수 없는 중요한 것이 되었다.

관 살 돈이 없어요

케냐 문화에는 “하람베”라는 것이 있다. 케냐 국어 키스와힐리로 “함께 일하다”라는 뜻이다. 초대 대통령 “조모 케냐타”가 만들어낸 스와힐리어로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합쳐 짐이나 물건을 끌어당긴다”는 의미이다. “하람베”는 케냐 사람들의 생활에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는 문화이고 함께 살아가는 케냐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하람베”는 결혼식에도, 장례식에도, 병원비에도, 심지어 자녀 교육비에도 적용한다. 가장 많이 하람베가 요청되는 부분이 장례일 것이다. 케냐 문화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반드시 자기 부족 땅으로 데려가야 한다. 도시에 일하러 왔다가 죽거나, 여행중에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생기면 그 시신을 자기 부족 땅으로 옮겨 가야 한다. 사람이 사망하면 부족 땅으로 옮겨 갈 때까지 보관하는 곳이 “안치소 (Mortuary)”이다. 그동안 온 부족이 장례비를 마련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하람베”이다. “하람베”로 장례 경비를 만드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경비가 만들어 질 때까지 시신은 국립 안치소에 있게 된다. 국립 안치소는 한국처럼 냉동 영안실이 아니다. 사실 장례식 장에는 냉동 영안실이 있지만 그 비용이 일반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싸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안치소(Mortuary)”에서 가족들이 병원비를 다 정산할 때까지 있게 된다. “하람베”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족이 병원비를 정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몇 주씩 안치소에 있게 해야 하므로 국립 안치소 주변은 늘 시신이 부패하여 생긴 물인

지, 일반 물인지 모르는 물로 흥건하다.

선교사의 집 울타리는 낮을수록 좋다. 선교사 초기에는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서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도 그들의 문화를 배우게 되었다.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기대하는 것은 병원비 전부일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지 만도 않은 것 같았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공유하며 나누면 그들은 감사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 두고 말하면서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인지 우리 집에는 손님들이 자주 찾아왔다. 병원비를 정산했는데 “관” 살 돈이 없다. 장례 치를 모든 준비가 되었는데 고향까지 시신을 운구할 차량비용이 없다는 등등의 도움을 청하면 “선교사 품위 유지비” 를 사용해야 한다. 30년 동안 셀 수 없을 만큼 “주었다(Giving).” “선교사 품위 유지비” 가 사용된 것이었다.

수술비가 없어요

케냐 사람들에게 양식과 장례비 다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이 병원비이다. 결코 자랑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주는 것” 이 선교에 어떻게 사용되게 하셨는지를 다루기 위함을 알아주기 바란다. 내 기억에 남는 몇 사례를 나누려고 한다. 신학교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형제에게 5살 된 아들이 있는데 머리에 혹이 생겨서 뇌수술을 해야 한다고 한다. “고향에 가서 하람베를 할 시간도 형편도 안 된다.” 고 울고 있다. 그 형제 부부에게 아들 뇌 수술비용은 천문학적 숫자였다. 수술비 전액을 도와주어 그 아들을 살렸다.

교회 20살 된 여자 청년이 어느 날 병원에 입원했다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그 어머니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신실한 성도로서 국립병원에서 간호

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그 딸이 진단 받은 병명을 기억을 못하지만 “장 수술”이었다. 그렇게 가난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갑자기 예고없이 일어난 수술비는 감당할 수 없었다. 급히 수술하지 죽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잔뜩 겁을 먹고 나를 밤에 찾아왔다. 딸을 살려달라고 울면서 도움을 청하는 그녀에게 수술비를 건네주었다. 케냐 병원은 사람이 죽어도 수술비를 완납하지 않으면 수술을 안 해 주던 시절이었다. 생활비와 사역비 집에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아서 수술비를 손에 쥐어 주었다. 그렇게 그 청년도 살리셨다.

산산조각 난 정강이 뼈

이웃 나라 탄자니아에서 온 신학생이 학교 운동장에서 다른 신학생들과 축구하다가 정강이를 걷어차여 뼈가 부러졌다. 급히 차에 신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정강이 뼈가 산산조각이 났다고 큰 수술이 될 것 같다고 한다. 탄자니아는 케냐보다 열악하다. 주의 종이 되겠다고 국경을 넘어 우리 신학교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 사람 수술비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지불하게 하였고, 그 학생은 지금 탄자니아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기고 있다.

팔꿈치 아래 없는 학생에게 의수를

르완다에서 온 학생이 있다. 르완다에서 케냐까지 오려면 육로로 꼬박 2일이 걸린다. 그렇게 온 학생이다. 23살이라는 그를 처음 본 순간이 내 마음이 아팠다. 한쪽 팔꿈치 아래가 없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도와줄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학기를 보냈다. 오토바이 사고로 팔을 잃었다고 한다. 한국인 선교사님 중에 정형외과 출신으로 의수 의족을 해주는 장로님이 기억났다.



<그림20> 의수를 해 준 학생

장로님에게 이 학생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의수를 해 주고 싶은데 경비가 얼마 드는지 상담을 했다. 몇일 뒤 학생의 팔을 보고 싶은데 데려 오라고 했다. 신학교 전교생에게 “의수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그 학생과 함께 차로 한 시간 떨어진 병원에 갔다. 장로님은 이것저것 살펴보시더니 “의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경비도 무료로 해 주시겠다고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은 학생의 의수도 만들어 주셨다.

앰브런스 기능도 해야 하는 선교사의 차량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장비는 아마도 차량일 것이다. 선교사의 차량은 본인의 이동 수단만은 아니다. 때로는 급한 환자를 이송하는 앰브런스도 되고, 때로는

양식을 신고 가는 운송 수단인 짐차도 된다.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선교지에서
 는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선교 차량이다. 도로 사정이 나쁜 지역은 4륜구동
 차량이 필요하고 승용차보다는 승합차가 선호된다. 내가 사용하던 4륜구동 차량은 7
 인승이었다. 지방교회를 갈 때는 뒷 좌석을 접어서 옥수수 가루를 실을 수 있을 만
 큼 싣는 짐차이다.

새벽인데 전화 벨 소리가 울린다. 선교사들은 새벽에 울리는 벨 소리가 무
 겁다.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국에서 오는 새벽 벨은 심장을 거의 멈추게
 한다. 그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한국어가 아니었다. 안도의 숨과 함께 들려오는 다급
 한 소리는 임신한 아내가 출산할 것 같아 병원을 가야하는데 “목사님 도와주세요”
 였다. 급히 차를 몰고 가서 건강한 딸 아이를 출산하게 하였다. 우리 동네는 시골이
 라 차 있는 집이 거의 없다. 그래서 내 차는 간혹 이렇게 엠브런스 기능으로도 쓰임
 받는다.

아들 학비가 없어요

전화벨이 울렸다. 저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전혀 낯선 목소리였다.

“저는 아무개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나를 만나고 싶은데 찾아 봐도 좋겠냐
 고 묻는다. “오셔도 좋습니다.” 라고 답을 한 후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주님이 무조건 나보고 그 분을 도와주라는 마음을 주시
 네” 라고 하자 아내가 “재정적인 것 같은데 당신 돈 있어?” 라고 묻는 아내의 말
 과 동시에 또 내 안에 떠오르는 마음이 있다. “미국 세미나 가려고 모아 둔 2,600
 달러가 있지 않느냐?” “주님! 3년이나 모은 것입니다. 곧 3,000 달러가 됩니다.”
 라는 나의 반응에 주님은 침묵이셨다. 그래서 아내에게 “그 돈을 그 분에게 드려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분이 오셨다. 눈물을 글썽이시며 “도와주세요 목사님.” 그린다. “새벽마다 아들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 수업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이 마감 날입니다. 기도하는데 목사님을 찾아보아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 나에게 대답을 못하시면서 “목사님 꼭 갚겠습니다.” “오늘까지 못 내면 졸업을 못합니다.” 라고 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신다. “2,600 불이 제게 있는데 주님이 당신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분의 아들은 지금 대학을 마치고 직장을 갖고 살고 있다. 하나님은 한 번의 나의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주셨다. 우리 아들을 미국 대학으로 보낼 학비가 우리에게서 없었다. 아들은 케냐에서 태어나서 12년을 케냐에서 공부했다. 한국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학업을 한국어로 할 수준은 안 된다.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미국으로 보내 주어야 하는데 우리에게서 방법이 없었다. 하나님은 우연히 한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교가 전 과정을 영어로 수업하고 전액 장학금을 준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급히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인터뷰를 통해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 아들에게 대학과 대학원 그리고 박사 과정까지 11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게 하셨다. 수억 원이 들어야 하는 아들의 학비를 한 번의 순종함으로 보상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사람들을 도와주게 하셨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 이것이 “주는 것과 받는 것” 이 순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다.

② 차세대 사역 : 유치원, 신학교

케냐에서 30년의 날들을 돌이켜 보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돌보심

이었다. 말라리아, 장티푸스, 이질, 이름도 모르는 풍토병으로 셀 수도 없이 쓰러졌던 나를 치유해 주셨던 주님이셨다. 노상에서 만난 때강도의 습격에서도 우리를 지켜 주셨고, 차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 때에도 생명을 붙들어 주신 주님이셨다. 이렇게 힘들고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30년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꿈을 꾸며 살았기 때문이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로 인해 생겨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다.

아내가 유치원을 하자고 한다.

우리 부부는 하루의 일정을 끝내고 저녁에 차를 마시며 담소하는 시간이 잦았다. 어느 저녁에 차를 마시던 아내가 말을 꺼낸다. “외국인을 처음 보는 아이들이 아내와 눈을 마주칠 때마다 울지만 맨 발의 아이들이 해 맑은 웃음과 푹푹 뚫린 큰 눈을 가지고 뛰노는 아이들이 사랑스럽다고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고 싶다며 유치원을 열자고 하였다.” 그 때가 2001년 이었다. 그 때부터 케냐를 떠나오는 17년 동안 아내는 고아와 유치원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정성을 쏟았다. 그렇게 우리의 차세대 사역은 시작되었다.



<그림21> 복음의 동산 유치원



<그림22> 동물원 견학



<그림23> 유치원 졸업식

36 명의 중,고등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고등학교를 마치게 해 주었고, 3 명의 고아들을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았다. 지금은 모두 사회인이 되어 있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뿌듯하다.



<그림24> 마나바 장학생들

당시 유치원 학생이었던 아이가 어느새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원이 되었다. 은행에서 줄을 서 있는데 누가 다가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한다. 우리 유치원을 졸업하고 우리 교회를 출석하던 청년이 은행에 취업했다고 하며 온갖 편의를 준다. 우리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며 마음은 한껏 뿌듯했다. 30년의 삶을 참 보람되게 하셨구나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새삼 감사한 순간이었다.

교회 사역자를 배출하여야 한다

전도 사역과 교회개척 사역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은 미래선교사역을 위해서는 영적 지도자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임마누엘 신학교”라는 이름으로 1995년 1월 첫 수업을 시작했으며 10년이 지난 후 케냐 문교부로 학위를 인준 받은 “복음의 동산 신학대학(Gospel Garden Bible College)”라는 이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림25> 복음의 동산 신학 대학교



<그림26> 복음의 동산 신학 대학교 전경

“복음의 동산 신학대학(Gospel Garden Bible College)” 설립 목적을 목회자 양성에 두고 사명감은 있으나 재정적 형편이나, 교육 받을 여건이 어려워 훈련 받지 못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에 두었다. 전액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을 선별하였고, 선발된 학생들은 대다수가 먼 거리에 위치한 지방에서 오거나, 케냐 인근 주변 국가에서 오는 학생들이기 통학이 불가능하다. 이런 형편을 고려하여 3년 과정으로 모든 학생들은 학교에 기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3년을 함께 동거동락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심어 주셨다는 취지 아래 3년 과정을 동거동락하며 목회자로 만들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림27> 학장 집무실



<그림28> 채플룸



<그림29> 컴퓨터 수업



<그림30> 수업 장면

중요한 3 가지 훈련

우리 학교는 3 가지에 강조하였다. 첫째는 성경 1년 1독이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성경위에 기초를 두며, 성경이 사역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성경을 모르고 사역한다는 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려는 어리석은 일이다. 성경 읽기 표를 나누어 주고 1년에 성경통독 한 번하는 것은 필수 사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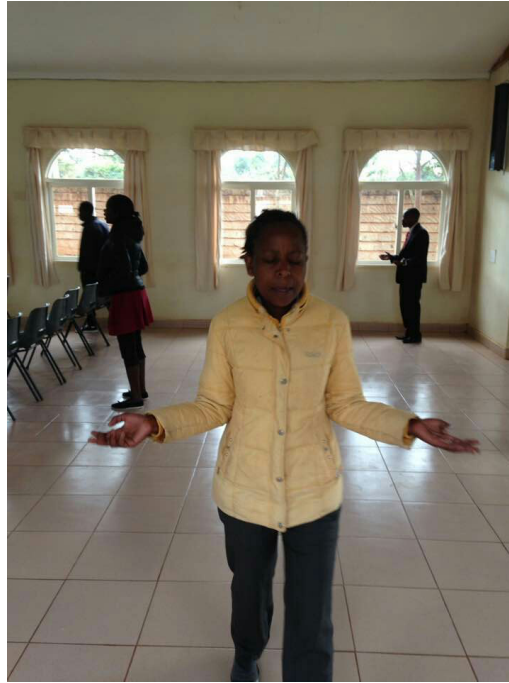
두 번째는 하루 3 시간 기도 하기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고 안타까워하셨다. 제자들이 한 시간의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는 3 시간은 기도하여야 할 것 같았다. 내가 이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은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생활하고, 식사도 학교가 제공해 주기에 여가시간이 많았다. 그 시간을 개인의 영성 쌓기 훈련으로 사용하라고 강조했던 것이다. 영국식으로 1년 3학기 프로그램이었으며, 기도를 강조하는 신학교인고로 매 학기 3일 금식하며 기도하므로 시작하는 전통을 가지게 되었다.



<그림30> 채플시간



<그림32> 기도하는 학생



<그림33> 주여, 들으소서

세 번째는 강조한 것은 전도와 주말 사역이었다. “행하지 않는 배움은 무익하다.” 는 것이 내 인생 철학 중 하나이다. 우리 학교는 규모는 작아도 명실공히 국제 신학대학이다. 케냐 학생 뿐 아니라 주변 국가인 탄자니아, 우간다, 에티오피아, 콩고, 수단, 르완다에서 온 학생들도 있었다. 외국에서 온 학생이든, 지방에서 온 케냐 학생이든 모든 재학생은 학교에서 다닐만한 거리에 있는 교회를 정하고 주말에 교회 사역을 의무적으로 하게 했다.

팀사역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에 기본이라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학교에도 현지인들로 구성된 팀이 있었다.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담당하는 매니저가 있었고, 학생들의 개인적 사정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 학생과장, 학생들의 영성을 위한 교목, 학과 과정을 프로그램하고 교수들과의 관계를 맡은 학과장, 그리고 나는 전체 팀의 소통을 맡은 학장의 기능을 하였다.

주말 사역은 교목의 책임하에 두었다. 교목은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들에게 학생들이 주말에 봉사할 수 있도록 소통하였고, 교회들이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보내주는 일을 하였다. 교목의 기능 중 중요한 것 하나는 일 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전도 실습(Out Reach) 장소를 섭외하고 계획하여 학생들을 현장으로 보내고 감독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학과 성적이 좋아도 이 전도실습 사역을 마치지 않은 학생은 졸업할 수 없었기에 그의 사역은 중요한 것이었다.

직업이 아닌 사명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사역지로 나가기 전에 나는 그들에게 사역은 직업이 아닌 사명이라는 것을 고취시키시기를 노력했다. 교회가 직장이 되지 말아야 하고, 교회 직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교회로부터 강제 사직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강제 사직을 당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그들에게 소리쳤다.

“체력은 영력이다.” 라는 구호아래 체력 단련을 위해 일주일에 하루는 수업을 쉬고 축구, 배구 같은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단련하게 했고, “넥타이를 풀어야.” 라는 구호아래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사역자라는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해 주 1 회 4시간씩 모든 학생이 열외 없이 작업복을 입고 일해야 했다. 학장도 과장도, 학교에 있는 모두가 동등하게 작업복을 입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는 날이다.

우리는 기숙사와 교실 심지어 화장실까지 학교 구석구석 청소하였고, 학교 정원에 필요한 노동도 하였다. 그 모습을 보면 아무도 우리가 학장이고 교수이고 신학생 인줄 알기가 어려웠다. 노동자 같았고 일꾼들 같은 모습이었다. 우리의 이마에

는 땀이 흘렀지만 얼굴에는 기쁨이 있었다. 영성과 체력 단련은 미래 사역을 위한 준비였다.

사역의 목적

선교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사람이다. 사역의 목적은 교회의 숫자적 성장이 아니고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이다. (벧전 1:9)”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도전한 것도 구원 곧 거듭남이었다. (요한복음 3장) 먼저 온 선교사라고 이제 막 케냐에 도착한 선교사들이 가끔 찾아와 조언을 구한다. 어떻게 하여야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들의 물음에 나의 답은 늘 세 가지였다. “선교사의 덕목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인내이다. 둘째 이곳에 잘 적응하고 싶다면 한국을 잊어라. 특히 ‘한국은 이런데, 한국에는 이것도 있는데’ 라는 말을 절대 하지도 말고 생각에 남겨 두지도 말라. 마지막으로 사람을 귀히 여기라. 결코 현지인들을 아래로 여기지 말고 귀히 여기며 함께 하는 법을 배우라” 고 조언을 해 준다. 위대한 선교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의 선교관을 남겼다. 그가 소중히 여긴 것은 사람이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살전 2:19-20) 했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방법이 사랑이다.

선교사가 양식도 주고, 교회도 세워주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 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그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하셨다. 이 말은 우리의 서로 사랑함이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이 된다는 가르침이었던 것이다.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은 사랑이라” (고전 13:13) 했다. 믿음과 사랑이 성경의 주된 내용이고, 이 둘을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소망이다.

이것을 등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럴 것이다.

“믿음 + 사랑 = 소망 (천국 소망, 구원)”

사랑은 믿음을 출발하게 하고, 믿음은 소망을 간직하게 한다.

소망은 사랑을 행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

선교사가 현장에서 주는 삶을 사는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고, 그 사랑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기가 되고, 구원 곧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랑이 지식이 아닌, 삶이 되도록 훈련하여 “주는 삶” 으로 나아가게 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게 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신학교를 설립 목적이었다.

그것을 위해 성경을 읽게 하고, 매일 기도하게 하며 필수로 전도여행를 (Out Reach) 수료하게 했다. 이렇게 26년의 신학교 사역은 400여명의 목회자들을 배출하게 되었다

육적인 것

① 사람을 얻으라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이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사람이다
선교는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람을 얻는 전략으로 사용하신 것이 “식탁교제 (Table Ministry)” 이었다.

식탁 교제 (Table Ministry)

사람을 사귀기에 식탁보다 좋은 장소와 기회는 없다. 식탁 교제는 예수님의

중요한 선교 전략 중 하나였다. 복음서에서 예수님 사역을 주의 깊게 읽어 보면 “식탁 교제”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유대 문화로 식탁은 주로 열려진 장소에 베풀어진다.

누구나 쉽게 올 수 있는 장소이다. 그래서 옥합을 깬 여인이 예수님 뒤로 올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누구에게나 보여 질 수 있는 열려진 장소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와 식사를 하시는지 식사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식사를 선교의 전략으로 사용하셨던 것이다. 예수님의 선교 전략이 식탁 교제였던 것을 잘 소개한 것이 누가복음이다.

누가복음 7 장에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실 때 옥합을 깨는 여인이 나타났고”, 누가복음 14 장에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신 장면과 혼인 잔치의 비유”, 누가복음 15 장에 “잔치 이야기로 끝나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6 장에 “잔치 이야기로 시작하는 천국과 지옥의 비유”, 누가복음 22 장에 “마지막 유월절에(성만찬) 천국에서 먹는 것”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공생애 시간동안 “죄인이라는 혹평과 비난”을 (마 11:19, 눅 7:34, 눅 5:33) 받으시면서도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일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은 식탁에서 많이 행해졌다. 그래서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으셨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죄인 취급까지 받으셨다.

“마 11:19 -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눅 7:34 -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눅 5:33 -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럼에도 식탁교제를 멈추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선교 전술이었기 때문이다.
식탁은 예수님의 선교 전술에 중요한 곳이었다. 식탁 전술은 “친구 되는 것” 즉
“관계 형성 (Building Relationship)” 을 하는 것이 그 목표이고 주제이다.

먹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린다

말레시아 사람들은 “먹자” 또는 “먹어” 라는 의미인 “마칸 마칸(Makan Makan)” 이란 말을 많이 사용한다. 한국 문화에서도 “식사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시작한다. 케냐 사람들도 스와힐리로 “밥 먹었니” 라는 말인 “우메 쿨라” 를 자주 사용한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친구라는 말이거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는 의사 표시이다. 사이 안 좋은 사람과 밥 같이 안 먹는다. 원수가 식탁에 같이 앉는 일은 안 일어난다. 원수였어도 식탁에 같이 앉는다는 것은 친구가 되겠다는 의사 표시인 것이다.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오늘 네 집에 들어가겠다.” 하시거나 “너와 함께 먹으리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그들의 친구가 되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영적으로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다. 밥을 같이 먹는 것은 친해지고, 친구 만드는 방법이다. 친구가 되어야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마음이 열려져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같이 밥 먹자고 하면 “나를 싫어하지 않는군, 나에게 호감적이군.” 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한다. 밥을 먹으면서 친해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술술하게 되고 내 말을 거부 반응 없이 들어주기도 한다.

선교비 용도 중 하나가 친구 만드는 일에 사용되는 식사비일 것이다.

케냐에서도 그러했지만 지금도 우리는 식탁 교체비 즉 식사비로 사용되는 재정 지출에 인색하지 않다.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얻는 시간이고 복음을 나눌 기회를 얻는 비용이기에 아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선교비 지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 전략은 집에서 먹든, 식당에서 사 주든 그들과 밥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도의 사랑의 교제로도 먹겠지만 가능하면 전도 대상자들과 더 많이, 더 자주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하나님의 선교 전술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선교사가 외식만 하고 다닌다고 비난할 수 있다. 더러는 “나는 아껴서 선교비 보냈는데 선교사가 바르게 안 쓴다고 비판하며 상처받기도 한다.” 또는 “선교사가 사치스러운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기도 한다.” 이 논문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나 교회가 식탁교제는 하나님의 선교 중 중요한 전략 중 하나라고 알게 되기를 원한다.

7 살짜리 손자에게 “돈은 쓰라고 주신 것이다.” “돈은 바르게 잘 써야 한다.” “돈을 바르게 잘 쓰면 하나님 또 주시고, 더 많이 주신다.” 라고 가르쳐 준 적이 있다. 아내 생일에 손자가 자기 모은 용돈으로 20불을 건네며 “할머니 수영복 사세요.” 라고 한다. 우리가 떠나 올 때 내 손에 편지 봉투 하나를 주며 할아버지 공항에서 열어봐 한다. 공항에서 봉투를 열었더니 편지와 5 달러가 들어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집에 놀러 와 주셔서 고마워요. 많이 많이 사랑해요. 할아버지 커피 좋아하시니 공항에서 커피 사 드세요. 그리고 빨리 또 오세요.” 고 적혀 있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7살짜리가 스스로 했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했다. 잘 가르친 것 같고, 잘 배운 것 같다. 이렇게 사랑은 주는 것이고, 선교 또한 주는 것이다. 사람을 얻으려면 용서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신학교 사무장으로 (당시는 일반 스태프 이었음) 일하는 사무엘 형제가 근무

초기에 학교 건축에 필요한 시멘트를 구매하러 현금 20만 실링 (한화 200만원)을 가지고 나갔다. 한 참 뒤에 얼굴이 하얘져서 돌아와 10만 실링 몽치 하나를 소매치기 당했다고 한다. 양쪽 안 주머니에 10만 실링 몽치 하나씩 넣고 있었는데, 공장에 도착해 보니 한 쪽 10만 실링 몽치 하나가 없더라는 것이다. 10만 실링은 그의 일년치 월급이다. 주변의 선교사들과 사람들은 그가 거짓말 하는 것이라고 하며 믿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웬지 거짓이 아닌 것 같았고 거짓말이라도 속아주자고 마음 먹었다. 청년 시절 나의 스승이셨던 오대원 선교사님을 (David E. Ross) 20년이 지나서 케냐에서 만날 수 있었다.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신 후 선교사들에게 자신들의 한국 선교 시절을 나누어 주셨다. 그 중 내 영혼에 깊이 새겨진 말이 있었다.

“선교사는 속이려고 하면 속아주고, 빼앗으려고 하면 빼앗겨 주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당신들은 그렇게 한국에서 살았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분들의 열매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섬기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그분들의 삶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중에 나도 포함된다.

사무엘의 얼굴에 “거짓말이 아니에요” 라고 쓰여져 있는 것 같았다. 설사 거짓이라고 해도 나는 그를 믿어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는 우선 자기 집에 있는 소를 팔고 (그들에게 소는 매우 소중한 자산이다), 매월 자기 월급에서 얼마를 공제하여 그 액수를 변제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나는 그의 말을 믿는다고 하며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는 나의 말을 믿기 어려웠는지 일주일 내내 어두운 얼굴로 풀이 죽어 있었다. 그런 그를 다시 불러 정말로 너의 실수를 하나님도 용서하셨고 나도 용서했으니 얼굴 펴고 이전처럼 웃으면서 일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해 주었다. 그렇게 그는 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우리와 가까운 지인 중 사업하는 한국인이 그 사람을 자기 회사 매니저로 달라고 하기에 그

사람에게 제안해 보라고 했다. 우리가 주는 월급의 3배를 제안했는데 거절 당했다고 하면서 “사무엘이 지금의 10배를 준다고 해도 안 가겠다고 했단다.” 이유를 물으니 임 목사님은 자기에게 그냥 목사가 아니고 자기 가족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며 나보고 부럽다고 했다. 케냐 사람들은 자기 집 거실에 부모님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걸어 둔다. 그런데 사무엘 형제의 집에 가면 그의 거실에 우리 부부 사진이 걸려져 있다.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해 주고 있다는 의미이다. 10만 링GIT은 나에게도 엄청 큰 돈이었지만, 나에게는 돈보다 사람이 더 소중했다. 나는 10만 링GIT을 잃어 버렸지만, 하나님은 내게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주셨다. 내가 그와 함께 일하는 17년 동안 그는 나에게 복이었다. 우리가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는 사무엘 같은 충성된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사람으로 이어가게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선교 곧 하나님의 일은 사람으로 이어가게 하신다.

모세를 선택하셔서 보내신 하나님이지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가나안을 보여만 주신다.” 그렇게 그의 사명은 끝난 듯 하였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계속 지도자로 지내게 하심은 후임자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일을 이어갈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유보하신 것이다.

무명의 엘리야를 선택하셔서 아합 왕에게 보내신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850:1의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3년 6개월 오지 않던 비를 오게 하는 능력을 보이셨다. 그런데 엘리야는 왕상 19:4에서 죽겠다고 브엘세바 광야로 갔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죽게 하지 않고 40 주야를 걷게 하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고 계속 사역을 하게 하신다. 그 이유는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기 위함이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의 선교는 사람이 행하게 하시고 그 일을 사람

이 이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선교인 “주는 것”은 “받은 자” 다시 “주는 공동체”가 되도록 사람을 세우는 일로 이어져 가야 한다.

② 30년의 사역의 열매들 사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잊혀 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다. 생각하면 행복하고 즐거운 아름다운 추억이 있고, 아픈 기억들이 있다. 케냐에서의 30년의 사역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그리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공간에서 기도 할 수 있는 동부 아프리카 최초의 “금식 기도원”을 세우게 하시고, 케냐 사람들에게 금식 기도를 소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름다운 기억이고 귀한 사역의 열매이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복음의 동산 신학교”를 설립하여 수백 명의 목회자들을 사역지로 보낸 것은 괄목할 만한 케냐 선교 사역의 열매라고 자부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케냐 형제자매들과 함께 개척하여 세운 47 개의 교회들과 “복음의 동산 케냐 교회 (Gospel Garden Churches of Kenya)”라는 교단도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에 주신 귀한 선교의 열매이다. 이 모든 열매들 위에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들이다. 우리의 “주는 삶과 사역 (Giving Ministry)”으로 영향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귀한 열매일 것이다. 그 사람들을 떠올려 본다.

말더듬이 정원사 무틴다 형제

무틴다 형제는 기도원 정원에서 잡부로 일하던 청년이었다. 어느 날 찾아와서 “나와 같은 목사가 되어서 300 km 떨어져 있는 자기 고향에 돌아가 복음을 전하

고 싶다고 신학교에 입학시켜 달라고 했다.” 초등학교만 나온 형제로서는 일반 전형으로 신학교 입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장의 권한으로 특별 입학을 허락해 주었다. 내가 신학교를 설립한 목적은 사명은 있으나 환경이나 재정이 어려워 훈련받지 못한 사명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었기에 그를 받아준 것이다. 2학년 1학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나를 찾아와서 고향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고 한다. 매주 금요일 저녁 밤차를 타고 가면 토요일 새벽에 도착하니, 토요일은 전도하고 주일 예배를 드린 후 저녁 차로 출발하면 월요일 아침에 학교로 돌아올 수 있으니 허락해 달라는 것이다. 학교 규정은 주말에도 사역이 없으면 허락을 받아야 나갈 수 있고, 특별한 사유 없이 새벽 기도회를 3번 불참하면 졸업도 어렵다. 교회를 시작하면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불참하여야 하기에 허락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렇게 “복음의 동산 키브웨지 교회”는 창립되었고, 무틴다 전도사는 2년 동안 성실하게 300 km를 왕래하며 사역하였다. 지금은 두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 동부 지방회 회장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우리의 케냐 선교사역의 소중한 열매이다.

성가대 지휘자 소경 마고마 형제

이 형제들은 케냐 서쪽으로 400 km 떨어진 지역에서 마차코스로 직장을 찾아왔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잘하는 것 하나씩은 주신 것 같다. “마고마 형제”는 어떤 노래든지 한 번 들으면 그 음을 기억해 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은사가 있었다. 어느 날 성가대를 만들고 싶다고 한다. 매주 1 회 교회에 모여서 연습을 시키고, 화음을 맞추더니 근사한 소리를 내는 성가대를 탄생시켰다. 그 동생은 음식을 잘 만든다고 해서 신학교 주방에 딸린 방에서 기거하면서 주방에서 일하게 했다. 신

학교 새벽 예배와 채플에 참석하면서 소명을 받았는지 신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하여 지금은 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가끔씩 생각나는 형제들이다.

맞사이 전도자 잭슨 레르테

잭슨 레르테 목사 부부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특별한 제자이다. 좋은 환경에서 도시에서 사역할 기회를 마다하고 자원하여 척박한 곳 삼부루 맞사이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자이다. 신학생 시절에 교제하는 자매가 있었다. 그 자매는 내가 담임 목사로 시무하는 교회 성도 가정의 딸이다. 똑똑하고 예쁘고 믿음도 좋은 자매였으나 내 눈에는 사역자의 아내는 아닌 것 같았다. 늘 제자들에게 사역 절반은 사모에게 달렸다고 가르쳤던 터라 잭슨에게 그 자매는 사역자의 배우자가 아닌 것 같다고 조언을 주었더니 그날 밤 “하나님, 당신의 종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 자매가 먼저 교제를 중단하자고 제안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한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그 자매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교제를 중단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졸업 후 고향인 “삼부루”로 돌아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데 어느 동네에 믿음이 정말 좋은 자매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자매의 이름만 듣고 그 동네로 찾아가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결혼하여 사역을 같이 하자고 청혼했단다. 자매는 급작스런 상황에 한 달 기도한 후 답을 주겠다고 하였고, 둘은 결혼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은 “삼부루 맞사이” 지방회 회장 목사로서 젊은 사역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나를 “과과”라고 부른다. 사역 평판이 좋아서 본부로 와서 더 큰 사역을 하라고 제안했는데 (섬 교회에서 강남 교회로 청빙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다) 사모가 우리가 이곳을 떠나면 “맞사이” 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느냐고 하면서 남기로 결정했단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된 사람들이 내 제자임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하우스 메이드에서 르완다 선교사로

주일 예배 후 성도 한 분이 내 사무실을 찾아왔다. 이 분은 교회 근처에 있는 중고등 학교 (Secondary School) 교사이다. 자기 집에서 일하는 메이드가 신학교를 보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상담이었다. 우리 교회는 “키쿠유” 부족 땅에 있고 이 자매는 150km 정도 떨어진 “캄바” 부족에서 일하러 온 자매이다. 나도 이 자매를 잘 알고 있던 터라 허락해 주라고 했다. 내가 주일 예배를 통해 본 그녀의 믿음의 태도는 나에게 신뢰감을 주었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주일 학교 전도사로 섬기게 했다. 전도와 기도에 열정이 있었던 자매라서 강도 높은 영성 훈련을 시키는데도 잘 따라오는 것을 보고 신학교 교목 보조로 임명하였다. 그렇게 7여 년을 사역하던 어느 날 “학장님 같은 선교사가 되고 싶다며 르완다로 보내달라고 한다.” 교단 임원 회의를 소집하여, 교단 산하 5개 지방회장 목사들에게 “루시 전도사”가 각 지방회 교회들을 순회하며 선교 비전 나눔, 중보기도와 후원을 일으키게 하도록 했다. 그렇게 우리 케냐 선교 사역의 첫 현지인 선교사를 르완다로 파송하는 열매를 보게 하셨다.

바나바 장학생이 은행원으로

사람을 키우는 일에는 “재정과 시간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 나는 차세대 양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차세대를 위해 년 1 회 교단 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교단 본부에서 일주일 동안 합숙하며 믿음과 꿈을 심어주는 “청소년 캠프”를 가졌다. 미래세대 양육은 영성만 강조해서는 부족하다. 영성과 교육이 겸비 되어

야 한다. 그러나 케냐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더 많았다. 꿈이 있지만 그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청소년들이 많음을 보고 바나바 장학회를 만들었다. 수십 명의 청소년들이 바나바 장학금으로 고등학교를 마치게 해주었다.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 취업을 하는 학생, 신학교로 부르심을 받은 학생들이 있었다.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은행 직원이 다가오더니 웃으면서 “목사님” 하고 부른다. 바나바 장학금으로 학업을 마친 자매가 이 은행에 취업하였다는 것이다. 한 달 되었다는 말에 나는 너무 행복하고 기뻐다. 우리의 “주는 삶(Giving Ministry)” 가 맺은 열매를 보았기 때문이다.

입양한 고아 요엘

아내가 “우리 고아들을 데려다 키울까?” 라고 제안한다. 얼마 전 성도들로부터 우리 동네에 에이즈로 부모가 죽어서 돌볼 사람이 없는 아이들이 몇 명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가 돌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한다. 한 번 도와주는 것과 데려다 키우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며 신중하자는 내 반응에 아내는 이미 마음을 먹은 것 같았다. 그렇게 우리는 7살, 8살, 9살짜리 남자 아이들 세 명을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다. 내 자식처럼 잘 키우겠다는 아내의 열정은 넉넉하지 않는 재정을 쪼개어 이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냈다.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수도로 쇼핑을 가는 날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맛있는 점심을 사 주고 싶어서 큰 맘 먹고 이탈리아 식당에 가서 피자를 시켰는데 아무도 먹지 않고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었다. 처음 보는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몰라서 였다. 데리고 나와 현지인들 식당으로 가서 닭 튀김을 시켜 주었더니 열 손가락을 빨면서 행복하게 먹는 아이들이었다. 5~6년이 지난 어느 날 9살짜리 “마야” 와 8살짜리 “모세” 가 공부하기 싫다며 도

망갔다. 7살짜리 “요엘”은 공부가 재미있는지 늘 반에서 1, 2등을 했다. 꿈이 뭐냐고 물으면 조종사가 되고 싶었던 아이였다. 중고등 학교 갈 때에는 아버지 같은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더니, 대학을 준비할 때에는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Day Star University 에 들어갔다. 올 해 졸업한다.

“주고, 받은 사람은 다시 주는 사람” 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이다.

이렇게 나는 케냐에서 30년을 “하나님의 선교” 라는 목적을 갖고 살았다.

제 IV 장

결론

받는 자의(Taker) 자리에 머무르게 된 이유들과 결과들

① 이유

식민 영향으로 형성된 사고의식

케냐 기독교 공동체가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직도 받는 공동체로 머무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꼽으라면 나는 식민 영향이라고 말할 것이다. 아프리카는 한국과 동시대에 복음을 받았다. 한국은 복음을 받은 지 2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 약 30,000여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주는 공동체”로 변모하였다. 아프리카도 복음은 받은 지 200여년이 지났지만, 내가 사역하는 30여 년의 시간들을 뒤 돌아보아도 아직 “받는 위치”에 머무르게 된 이유는 식민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고착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식민으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형성된 의식들 중 하나이다. 스스로 하려고 하는 독립적인 자세보다는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더 수월할 것이라는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사고가 의식 깊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주기 보다는 받는 것에 아직도 익숙해져 버린 것이다.

케냐 사람들끼리, 또는 가족끼리, 부족끼리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어렵지 않

게 볼 수 있다. 그러나 헌신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서 조차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선교적 마인드는 보기가 어렵다. 외국인은 자기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식이 일반적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으나 내가 선교지로 왔을 때 초기에는 학교에서 “외국인의 소유물은 가져와도 도둑질이 아니다” 라고 가르쳤다고 한다. 심지어 흑자는 “선교사가 가진 것의 절반에 대한 소유권이 우리에게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② 결과

빛을 갇아야 한다는 의식 결여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은 다른 민족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복음의 빛진 사람들이라는 의식이 적다는 것이다.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는 태도는 갇아야 한다는 성서적 성장까지 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사역자들이 선교사와 연결되기를 원하고, 해외 선교 단체나 교회들과 연결되어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는 태도는 성도들에게 까지 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그 결과 복음의 빛진 사람들이라는 가르침이 결여 되었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받은 자로서 주는 자리” 로 나아가야 한다는 믿음의 원칙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선교와 전도에 대한 이해 부족

극소수 교단의 케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케냐 영토내의 다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인식한다. 국경과 문화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정의한다면 케냐에서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없다

고 보아야 할 정도이다. 다른 도시로 사역을 가는 목사는 선교 사역을 하러 간다고 말한다. 그렇게 성도들을 전도의 사역과 선교의 사역의 구분점을 혼돈하게 만든 것이다.

아직도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케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성장한 기독 공동체이다. 실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들은 케냐 인구의 80%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를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다. 케냐의 국교는 기독교라고 자랑한다. 실제로 케냐에는 뛰어난 신학자들이 무수하고, 한국 교회 못지않게 성장한 대형교회들도 많다. 받는 자들이 아니라 주어야 하는 공동체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들의 의식이 나에게서 아이러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선교사의 선교 후반에 들어가서 몇몇 교단에서 소수의 선교사들을 해외로 파송하였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케냐 기독 공동체도 이제 선교사를 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된 것 같아 참 기뻐다.

제언

① 의식의 변화 (cognitive science : From Taker to Giver)

“우리도 선교사를 보낼 수 있다. 우리도 선교사를 보내야 한다” 라는 의식의 변화가 (cognitive science : From Taker to Giver) 있어야 한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 “바뀌어야 바뀐다” 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기억해 보면 “바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였다.

“어릴 적에 구박을 많이 받고 자라서 나는 자존감이 낮다.” 라는 말을 수십 년째 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정말 자존감이 낮다는 열등감에 젖어 살고 있는 50대의 목사가 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열등감에서 나오게 하실 수 없는 분인가? 아니면 자신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 본다.

“아내가 하는 말에 화가 나서 밥상을 뒤엎었다고 하며 내가 성격이 나쁘다는 것 안다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진거다.” 라고 하는 성도가 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성격을 바꾸실 능력이 없는 분인가? 아니면 이 사람의 성격과 믿음은 연관이 없는 것인가?

“일 년에 한 두 번 잔뜩 취해 들어와서 토하고 소리 지르고 자기를 때리는 아내를 다 받아준다는 사람이 있다” 취한 이 사람은 직분자의 아내이다. 너무 속상하는 이야기들이다. 직분자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릴까? 생각하니 많은 해가 바뀌는 세월 동안 이 사람들은 왜 바뀌지 않는 것일까? 측은을 넘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다. 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복음이 이들의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한다면 그들의 믿음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 본다.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 온지 200년이 넘는다. 그 긴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이들은 바뀌지 않았다. 그때도 받는 위치에 있었고, 지금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들이다. 왜 안 바뀌었을까? 왜 못 바뀌는 것일까? 한국 선교사들이 케냐 기독교에 이러한 도전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복음 증거에 유익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이 “주는 공동체” 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어야 한다. 이들의 의식만 바뀔 수 있다면 케냐 기독 공동체는 주는 공동

체로서 하나님의 선교를 잘 할 수 있는 장점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다.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장점도 많다.

케냐 그리스도인들을 선교사로 파송한다면 먼저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적을 수 있다. 많은 부족들, 그들이 다양한 부족어가 공존하는 삶을 살아온 이들에게는 문화에 적응하는 뛰어난 능력이 있고, 언어 습득 능력이 뛰어나다. 케냐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회가 주어지고, 마이크를 손에 잡으면 그칠 줄 모르고 말을 한다. 이러한 기질과 성향들이 타 민족, 타 문화권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에 큰 장점이 될 것이다.

루시 선교사의 사례를 보면서 두 가지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나는 로컬 교회들의 선교사 후원에 대한 의식 결여와 방관적 자세이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한국인 선교사가 보냈으니 한국 교회들이 지원할 것이라는 방관적 태도를 보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선교사 훈련의 미흡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②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 개발 (Developing Mission Program)

선교 훈련이 필요하다. 로컬 교회들이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면서 영적인 부분을 준비하게 하는 선교사 훈련을 마련하여야 한다.

선교사 훈련의 주요한 내용들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다.

하나, 투명하고 분명한 소명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둘,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하는 방법 제시

셋, 타문화권에서 소통의 기술 (Cross-cultural Communication)을 배우고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제시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

넷, 자신의 은사와 사역 Vision를 구체화하는 것

다섯, 로컬 공동체와 협력하는 자세

여섯, 재정 모금 (Fund Rising Method)의 방법과 주의 사항들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배우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익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주는 자로의 (Giver) 전환을 한국 선교사들이 해야 할 일들

“받은 공동체인 케냐 교회”가 “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려면 먼저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을 동역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내가 본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을 사명을 공유하고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자보다는 하수인 내지는 고용인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태도는 그들을 가변이 여기고 낮게 취급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어서 현지인 사역자들의 마음을 얻기가 어렵다.

두 번째는 사역에 대한 현지인의 생각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 선교사들과 함께 일하는 대부분의 현지인들은 자기가 몸담고 섬기는 사역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의 것이란 생각은 아예 못한다. “선교사가 주인이다. 나는 선교사를 돕는 것이다. 잘 도와주고 선교사 마음에 들게 하면 나에게 더 많은 유익이 주어 진다.”라는 의식을 갖게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들은 현지인들이 사역을 계승할 열망도 책임의식도 갖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이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선교사는 떠날 준비를 하며 사역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사역 이양”이다. 이 사역이 내 것이 아니라는 기본적 신앙 의식과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는 믿음으로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사역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바통을 받아 뿔 받을 사람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입 버릇처럼 함께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에게 말했다. “이 사역은 너희들의 것이다. 이곳은 너희들의 땅이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야 하는 사람이지만 너

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이 사역을 이어가야 할 사람들이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처럼 나는 그 땅을 떠나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그 모든 사역들은 지금도 그 땅에서 나의 제자들을 통해, 나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계속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선교는 “주는 것”이다.

“먼저 받은 것”을 다른 민족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이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받기만 하는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망각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흘러가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전하여 져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과 그들을 파송한 교회와 단체는 피선교인들과 그 교회를 주는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기여하는 전략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선교사 자신이 일선에서 주도적으로 사역하는 것 못지않게 피선교인들을 일으키고 세워서 성장하게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선교의 최종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나의 케냐 선교 사역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이 논문이 피선교인들을 “받은 자에서 다시 주는 자”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게 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도전하는 공동체가 되어 주기를 소망하며 이 논문을 마친다.

참고 문헌

외국어 서적

Arthur Wallis, *God's Chosen Fast*,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1968

D. L. Moody, *Prevailing Prayer*, Moody Publishers Chicago, 1941, 1987,
2016

Dr. Leonard Sweet, *Aqua Church*, Group Publishing, 1999

Dr. Shellton, *Fasting can save your Life*, American Natural Hygiene
Society, 1978

Mahesh Chavda, *Only Love can Make a Miracle*, Mahesh Chavda
Ministry, 1990

Tim Chester, *A Meal with Jesus*, Crossway, 2011

Tommy Tenney, *The God Chasers*, Destiny Image Publishers Inc., 1998

Walter Arthur McCray, *The Black Presence in the Bible*, Black Light
Fellowship, 1990

번역서적

Dr. Leonard Sweet, *모던 시대의 교회는 가라*, 김영래 역, 서울: 좋은 씨앗, 2004.

Charles Van Engen, *미래의 선교 신학*, 박영환 역, 인천: 도서출판 바울, 2012.

한국어 서적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8, 2016.

조병호, *성경과 5대제국*, 서울: 통독원, 2011, 2019.

조병호, *통성경길라잡이(개정증보판3쇄)*, 통독원, 2021, 19.

곽희문,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아가페북스, 2013

김영래, *미래 교육 목회*, 서울: 통독원, 2010.

손창남, *다니엘서를 선교적으로 읽으면 깊고 은밀한 일이 보인다*. 서울: 죠이선교회, 2020.

유부웅, *기독교는 아프리카를 구원하고 있는가?*, 서울: 아세아 선교회, 1992.

이현모, *인생의 후반전은 시니어 선교사로*, 서울: 죠이 선교회, 2007.

한동일, *라틴어 수업*, 서울: 흐름출판, 2017.

한동일, *로마법 수업*, 파주: 문학동네, 2019.

논문, 잡지, 기타 간행물

김영래, “미래교회 트렌드 읽기,” 국민일보, 2012

한국선교연구원, “선교학적 연구 방법론,” 한국해외선교회 출판부 현대선교 18 (2015), 25-52.

VITA
PERSONAL DATA

Full Name : **Tae Soon Im**

Place and Date of Birth : **Gangwondo, 19 Feb. 1958**

Parent's Name : **Eun Jae Im / Jeon Kum Soon**

EDUCATIONAL INSTITUTIONS

| School Name and Address | Degree | Date |
|---|---------------|--------------|
| Diploma : Full Gospel Theological Seminary Yeokmalro 8 gil 5-1, Enpyung-gu Seoul, Korea | Diploma | Feb 4 1980 |
| Collegiate : Han Young University 290-42 Kyeonginro Gaebong-dong Guro-gu, Seoul, Korea | Th. B | Feb 24 1988 |
| Graduate : Midwest Theological Seminary 851 Parr Road, P.O. Box 365 Wentzville Missouri 63385, USA | MA in Mission | June 27 1997 |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Tae Soon Im

March 6. 2022